2008년 통권 제16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6. 2008.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초겨울의 숲

유 대 산

숲길을 걸으면
나무들이 다
변심한 내 애인 같다
나무 뒤에 또 나무에게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벗어라 벗어라 다 부질 없다고
마음 쓸며
바람의 길 가자한다
무량한 공허만이 가슴 들쑤시는
숲길 걸으면
나무들이 다
변심한 내 애인 같다.



약력
유대산
* 전북 완주 출생
* 전북시인협회 회장
* 시집 : 눈 바로 뜨고 게는 옆으로 간다.
* 전북대학병원 근무

표지작가안내





엄 기 석 〈꿈의 정원 / 60호 / 장자+황토+먹+혼합재료〉

- 1986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졸업
- 1990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 현) 한국미술협회, 시대미술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순창 제일고등학교 재직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06-3 우성중산타운 102동 1503호
- 전화 : 063-226-8673 (S) 063-222-8357 (H · P) 010-3681-8673
- E-mail : egs3344kr@hanmail.net

전북회화

전·북·회·화·발·자·취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展-위란·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캣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1~1.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자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나의작업노트
08 박지예
09 방청엽
10 안순금
11 엄기석
12 이승훈
13 이광원
14 이진숙
15 이철규
16 이희량
17 이우정
18 윤 호
19 정미현

전시리뷰
20 이철규 개인전

특별논단
22 미술감상의 지름길 최병식
28 한국화에 대하여 엄기석
38 문인화의 정신적 배경으로서의 선사상 이철규
40 산수화의 새로운 면모를 위하여 이승훈

작가탐방
46 화가 김치현씨를 찾아서 안순금
48 흙과 함께 사는 도예가 이명복씨를 찾아서 엄기석

미술관을 찾아서
52 전북도립미술관 「모악에 펴다」를 찾아서 박지예
56 3rd Battalion 11th company 1st platoon 이진숙

나의여행기
60 딸을 둔 덕에 비행기를 타다 이진숙
64 하얼빈 여행기 고형숙

여유로운 삶의 향기
68 초겨울, 강가에서 선산곡
70 사람살이 이진숙
72 읽을만한 책 편집부
73 주소록 및 편집후기 엄기석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전북화화 - 부산교류전

2008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09. 08 (mon) - 09. 12 (fri) 2008

부산수영문화센터



인 사 말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두 번째 교류전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부산과 전주라는 먼 거리감은 있지만, 지필묵을 가지고 전통과 현대성을 고민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필묵을 사용하는 한국화가 전통적 인습이나 관념에 빠져 보다 넓은 표현의 가능성을 놓친다면 현대회화에서 입지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면 현대성, 표현의 다양성과 실험성 혹은 매체 혼용의 가능성에 집착하여 개별 장르의 고유의 특성을 저버리는 것도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작업에서 아름다운 조형언어로 해석하여 독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영원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필묵을 다루는 대부분의 작가들의 고민은 고유의 한국적 정서의 표출일 것입니다. 한국적 정서에 근원을 둔 현대회화, 그리고 내용적으로 심오한 정신세계가 담겨 있는 회화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양회화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운생동하는 작품, 즉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조형언어가 지필묵을 근간으로 하는 작가들을 통해 표현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 9

전북회화회 회장 엄 기 석

김영자, 김정우, 김주연, 구본호, 류회민, 박지예, 방정협, 이보순, 이우정, 이정남, 이진숙
이승훈, 이철규, 임옥금, 이광원, 이희량, 안순금, 엄기석, 윤 호, 윤혁길, 정미현, 최광규



작은 아버님의 초상화 / 20호 / 진채화

"모든 관계와, 모든 허식과, 모든 양식을 버린 그림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그리는 순수한 행위...
거기에는 천한 화원도, 지엄한 왕도, 스승도, 제자도 없었다.
붓은 그리는 자의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그려지는 자는 본 얼굴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 바람의 화원 中에서 –



박 지 예 (Park, Ji-ye)

•원광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2005 전국 누드크로키전 (단원미술관) •2005 전라북도 미술대전 (소리문화의 전당)
•(우 561-83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0-68 •전화 : 011-624-9715



비상(飛上 08-9) / 110x60(cm) / 천+수묵채색

비상(飛上)

비상이 뭐야?
아이가 묻는다.
음, 그건...
새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라 올라가는 거지.
새가 날라 가는 거야?
응, 힘차게 나는 거야.
아이는 금새 자기 생각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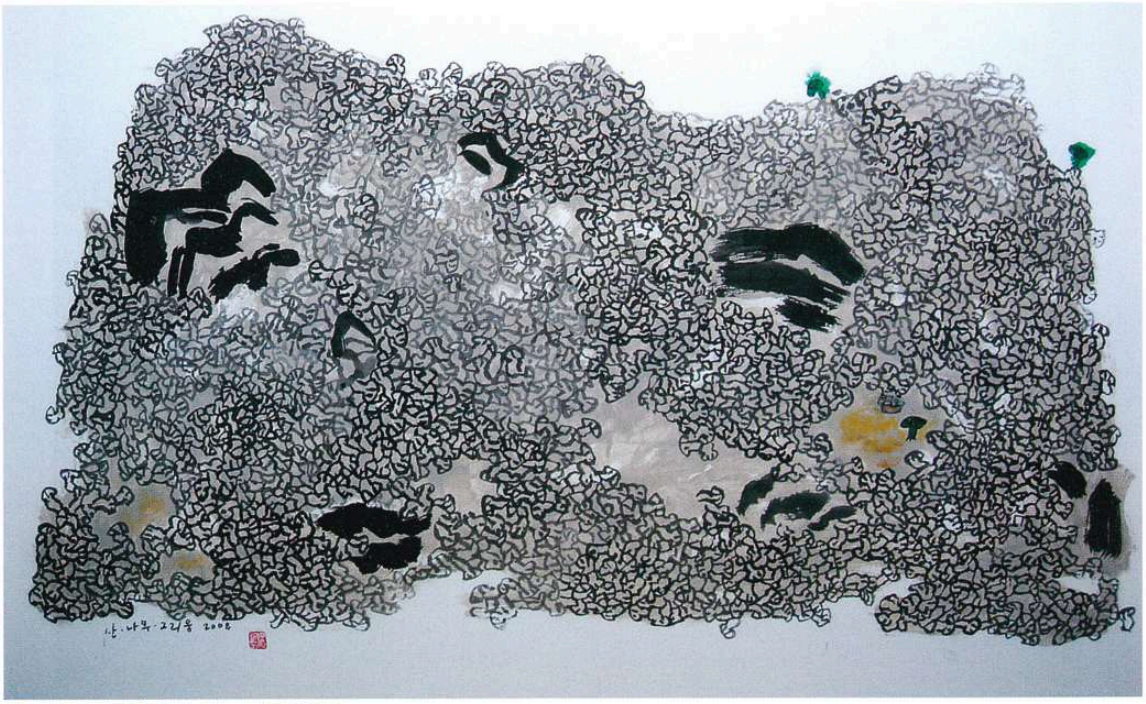
만추(晩秋)에 길을 나섰다.
타다가 타다가 지친 잎새들은
스치는 바람에 떨고 있다.
아무것 없어진 계절,
이제 새들은 비상을 준비한다.
가질게 없는 시절(時節)을 딛고
허허로이 창공(蒼空)을 향해 날개 짓을 시작한다.

강가의 노을은 깊어지고
저무는 계절의 길 위에서 희망(希望)을 줍는다.



방 정 엽 (Bang, Jeong-yeob)

•전북대 미교과 졸 •現 전라고등학교재직, 전북회화회 · 한국미술협회원 · 전통미술연구회 회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가 대우2차아파트 207-802
•전화 : 063-251-4902(O), 063-246-3073(H), 011-681-7127



산 · 나무-그리움 / 105×65cm / 혼합재료

내가 주로 그리는 소재는 산 · 나무 -그리움이다. 어렸을 때 내장산 밑 금붕동이라는 작은 마을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라던 곳이다. 그 뒤 이사를 간 뒤, 줄 곧 자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였던 기억이 있다. 뒷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은 앞산이 가까이 있었고, 해질녘이면 앞 산 그림자가 신작로 길을 넘어 마을 어귀 정자나무가 있는 곳 까지 드리워지는 곳이다. 비가 오고 난 뒤 멀리 저수지 뒤에 있는 내장산 서래봉을 바라보면 물안개가 가득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기도 했다. 서래봉 위의 물안개가 하늘과 닿는 부분을 보고 있으면서, 구름 멀리 하늘 저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동경했던 기억도 있다.

어렸을 때 고향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 생각나던 그 산. 지금까지 그 산들이 내 그림의 소재로 들어와 있다. 나는 화면 가득 큰 산을 만든다. 산속에 나무들의 뒤엉킴도 만들고 바위도 만들며, 고향 집 같은 작은 집도 그려 넣는다. 어렸을 때의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안 순 금 (An, Soon-geum)

•전북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 •전북대 교육대학교 미술전공 졸 "동양화의 추상성에 관한 연구"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예술대학원 졸 •1997-열화랑(전주) •2004-허버트 아트 갤러리(영국) •2001-전북,부산 한국화 교류전(부산,금정문화회관 : 전주,삼성문화회관) •2002-'2002년 전북의 자연과 생성전'(전주, 소리문화전당) •2004-'새로운 지평선' (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 '함류'(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 '전북도립 미술관 개관전-전북 미술의 조명'(전주, 전북도립미술관) •현) 전북회화회 회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560-833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광진햇빛찬 101동 1204호 •전화 : 063)711-7753, 016-635-6314(휴) •E-mail : f12-4@hanmail.net



꿈의정원 / 15호 / 황토+먹+혼합재료

'예술의 진리는 형식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 안에 침전되는 소리 없는 목소리로 존재한다.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것이 침전된 형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동하는 자연과 우주와 호흡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하다. 그 꿈이 현실이 되면 그 꿈은 신의 정원이 된다. 까치와 느릅나무가 함께 잠자고, 물총새와 버들치가 노래하는 생명의 공간에서 긴 하루가 시작된다. 시작과 끝이,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하는 카오스적인 시간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도 허물어진다. 단지 긴 호흡을 취하며 휴식하는 생명체들만이 여유롭게 졸고 있다. 여기에 꿈의 정원이 있다.

– 2008년 11월 꿈의 정원을 생각하며 엄 기 석 –



엄 기 석 (Eom, Gi-seok)

•1986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졸업 •1990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2004 전통의 힘-한지와 모필의 조형(전북예술회관/전주) / 전북회화회(전주 국립박물관/전주) / 미술 초대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초대전(단원미술관/안산) / 한 · 중 현대미술 소통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전북 중견, 청년 작가 초대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2005 들꽃의 향연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영 · 호남 상생의 만남전 (메트로 갤러리/광주) / 한국미술 정예작가 초대전(GEORGE MASON 갤러리/미국워싱턴) /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발(GIAF)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서울) / 민촌아트센터 초대전 (민촌아트센터/전주) •현) 한국미술협회, 시대미술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 순창 제일고등학교 재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06-3 우성중산타운 102동 1503호 •전화 : 063-226-8673 (S) 063-222-8357 (H · P) 010-3681-8673 •E-mail : egs3344kr@hanmail.net



자연사랑 / 40호 / 수묵담채

자연사랑

지난여름
산은 가뭄과 전쟁을 치렀다.
계곡은 사람들로 넘쳤고
사용한 물건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자연은 엉망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자연은 멍들고 병을 앓기 시작 했다.
인간의 효험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이 해괴한 짓 못볼지경이다.
산에서 내려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장수를 염원한 그림도
자연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당연하다는 말 연해 주문하며
길에서 묻는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기 위하여..



이 승 훈 (Lee, Seng-hoon)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동 대학원 미술과 졸업 •전북의 산하전 •한국 100인 자연전 •향토작가초대전 •전라한국화제전
•월드컵 개최성공 기원 겨울미술제 •전북 부산 한국화 교류전 •전북 서울 한국화 교류전 •전북중견청년작가전
•현재 산묵회, 한국미협회원,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전북회화회, 아트회 출품
•주소 : 570-930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E-mail : artnara@paran.com
•전화 : 자택 063-851-0577, 직장 063-453-2127, 핸드폰 010-2073-0655



나의 생, 어디쯤 왔는지 / 130.3×89.4cm/장지, 먹, 석채, 채색

나의 생, 어디쯤 왔는지

살아온 날보다
다웁게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다고
남을 위하여 헌신한 날보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다고
봄 햇살 따스한 창가에서 흘러가는 구름이 말했다
삶도, 세월도, 허무도, 흘러가는 구름

구름은 허공에다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무지개의 어머니
물방울의 어머니
구름은
흘러가는 바람의 꽃이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焭奐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1-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꿈-행복/50호/수묵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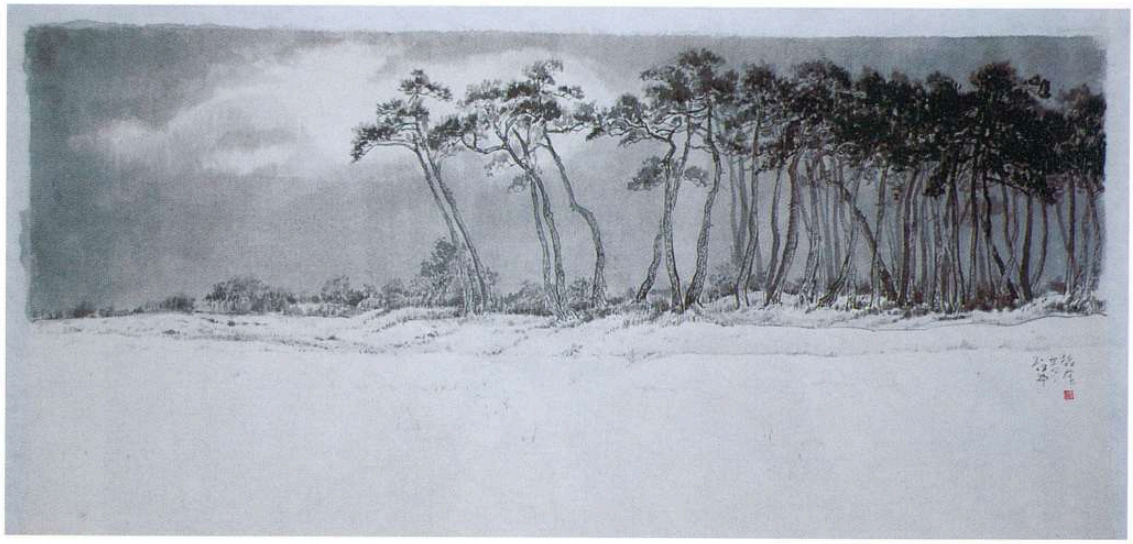
꿈 – 행복

밭에서 풀을 뽑고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아침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옷에 묻은 흙을 툴툴 털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쌀을 넣고 불을 켠다. 그리곤 다시 밭으로 나가 상추를 뜯고 언덕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머위를 어린잎만 딴다. 그리고 앞산 기슭에 올라가 두릅을 따가지고 돌아와선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상추를 씻고 머위 잎을 삶고 두릅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맛있는 전을 부친다. 밥이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릴 무렵 뚝배기에 된장을 끓이고 밭에 있는 파를 뜯어 송송 썰어 넣고 상을 본다.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는 2층 작업실로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오수를 즐긴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살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보았다.



이 진 숙 (Lee, Jin-sook)

•원광대학교 졸 •개인전 7회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현)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원묵회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전화 : 010-4605-9876



相生 - 송 / 40×50cm / 한지에 채색, 순금박

이번 개인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금과 한지의 결합이다.
즉 한지위에 개금과 금박기술을 이용하여 금을 입히는 공예적 요소를 회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금이라는 물질의 양면가치를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만이
금이 금으로서의 그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초점은 인간의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철 규 (Lee, Choul-gyu)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4회(서울, 전주, 미국) •전북청년미술상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본상 •3인삼색전(공평아트센터,서울) •02! MANIF전(예술의전당, 서울) •풍경,산수,풍경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전북도립미술관개관-엄마-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 •독섬,독도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현) 전북회화, 시공, 우묵, 미협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90-6 •전화 : 018-279-3775, 063)222-4247, 063)640-7205



그래도, 길은 하나 / 130.3cm×97cm / 한지에 수묵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모든 길을
다 가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목을 길게 빼고
길이 끝나 보이는 데까지
멀리 헤아려 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나에게는 최상의 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그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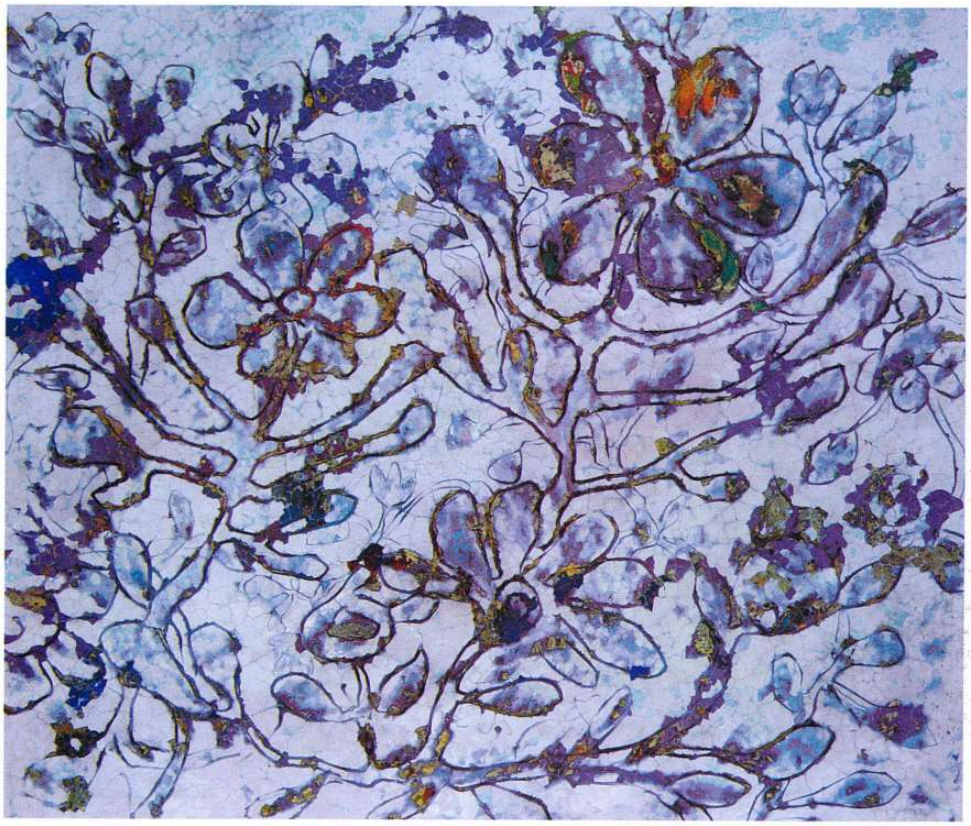
그 길에서 나는 사람을 만났고
사랑을 했고
인내를 했고
행복도 맛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길이
크고 좋아 보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길은
내 길이 아니기에
나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희 량 (Lee, Hee-Rya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재학 •곤우회, 우묵회, 전북회화회원
•560-2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13-1
•전화 : 063-211-4004, (휴)011-652-4904 •E-mail : chunhung@naver.com



비음 / 116.8cm×91cm / 광목에 혼합재료

구름으로 만든 이름이 좋다
바람으로 엮은 옷매무새가 좋다
햇살이 비치는 곳이면
비바람이 새어도 좋다
나를 문풍지 울고가는 뜰앞에 놓아다오
콘크리트 담벼락은 싫다
한 낮이면 갈증의 물을 주는 정원도 싫다
잠자리도 한줌 날개를 좋았다 가는
빈집이 좋다
이슬에 흠뻑 젖어서
네가 그리워 그리워 찾아가는
흙냄새 진동하는 그늘진 뒤뜰이 좋다
감나무 한그루 제멋대로 가지를 내린
햇빛 그림자 감춘 아래라도 좋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좋다
지푸라기 한 올
허벅지에 제멋대로 올려놓고
낮잠에 빠지는 정오라면 더 좋다



이 우 정 (Lee, Woo-Jeong)

•전주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 대학원 미술학과 재학 •현) 전북회화회, 환경미술협회 회원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101-202 •전화 : 016-239-2221



鎭魂曲(진혼곡) / 162.2x130.3 / 한지+먹+황토

또다시 시내에 노란 계절이 왔다 항상 이맘때면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
이 계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회색 건물 사이로 노란 물이 들어 갈때면
목적지 없던 발길이 나도 모르게 화실로 발길을 옮긴다.
따스한 커피한잔이 그리운 계절이다.



윤 호 (Yun, Ho)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졸 •제30,31,35회 전북미술대전 특선 •2008제1회 섬전(만남과 소통) •2008전북회화회(부산교류전)
•기타 우묵회,전북회화회,실체와허상회,전시등 •현) 전북회화회 및 우묵회회원
•주소 : 전주시 평화동1가 일성아파트103동1708호 •전화 : 010-4654-0971 •e-mail : yunhoart@naver.com



默想(묵상)/ 110×70cm / 천에 수묵

조금은 부끄러운 듯 살포시 하늘을 향한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여기저기 마당에 피어 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게 내 눈에 가득하다.
여러 가지 재미없는 일상에서 굳어져버린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피어난다.
마음이 즐겁다고 나에게 말한다.
꼬였던 것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 말하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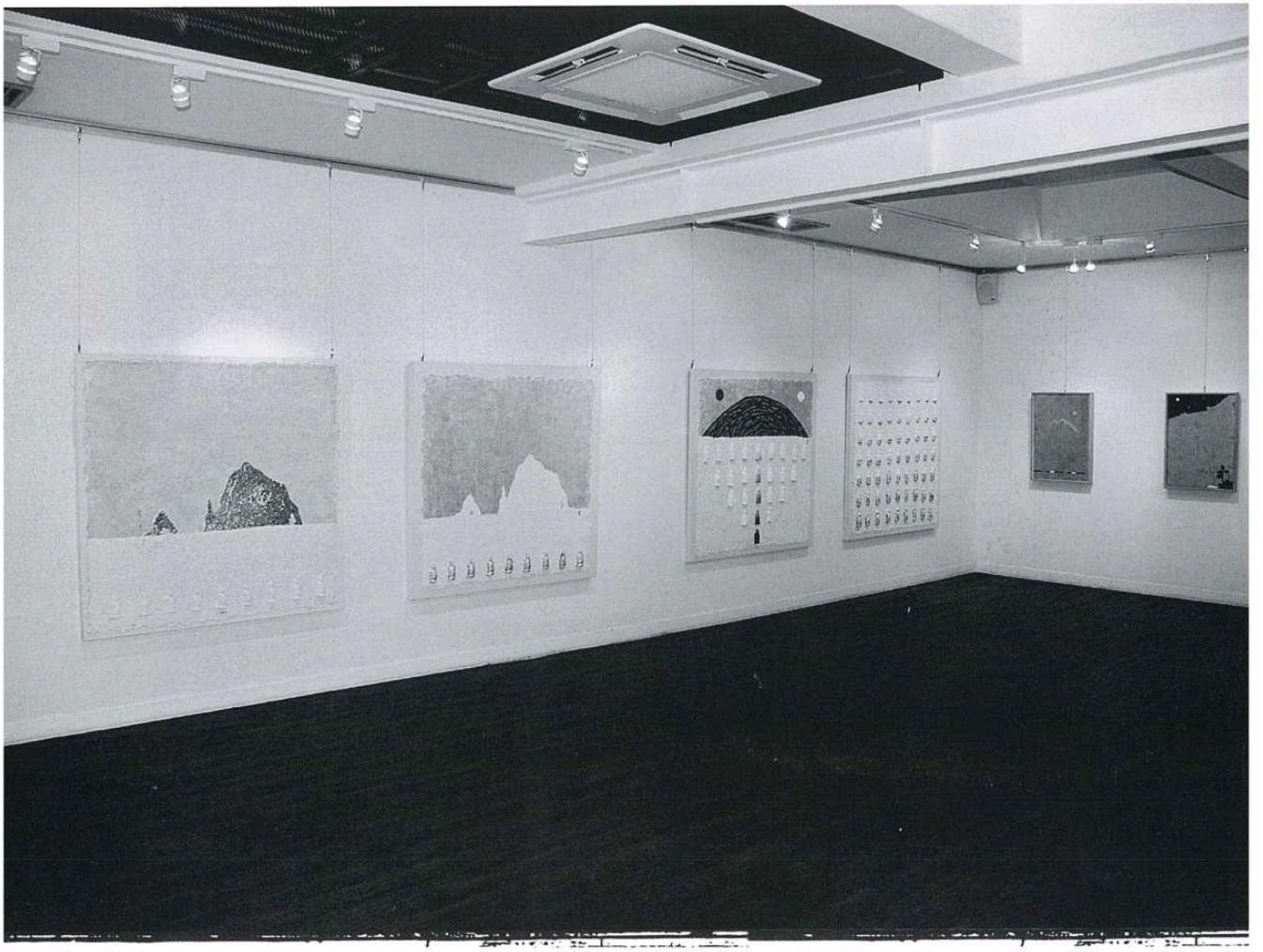
땅과 하늘사이에 퍼즐처럼 놓여있는 사람살이가 조심스러워진다.
흔들릴까? 누가 흔들어 버릴까? 조바심으로 바라본다.
마당에 핀 꽃들은 퍼즐과 퍼즐사이에 숨쉬는 여백이다.

오늘은 꽃이 나를 웃겼다.
국화꽃이 활짝 피어나는 찻잔 속에 코를 묻는다.
작지만 정말 좋다
내 인생의 여백처럼, 나를 숨쉬게 하는 묵향처럼...



정 미 현 (Jeong, Mi-hyeon)

•개인전 6회 •단체전 및 초대전 110여회 참여 •뉴욕에서 바라본 우리그림전(파인아트갤러리/뉴욕)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회원
•현) 군산산북중학교 재직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778번지 •전화 : 011-682-3560 •E-mail : hyun356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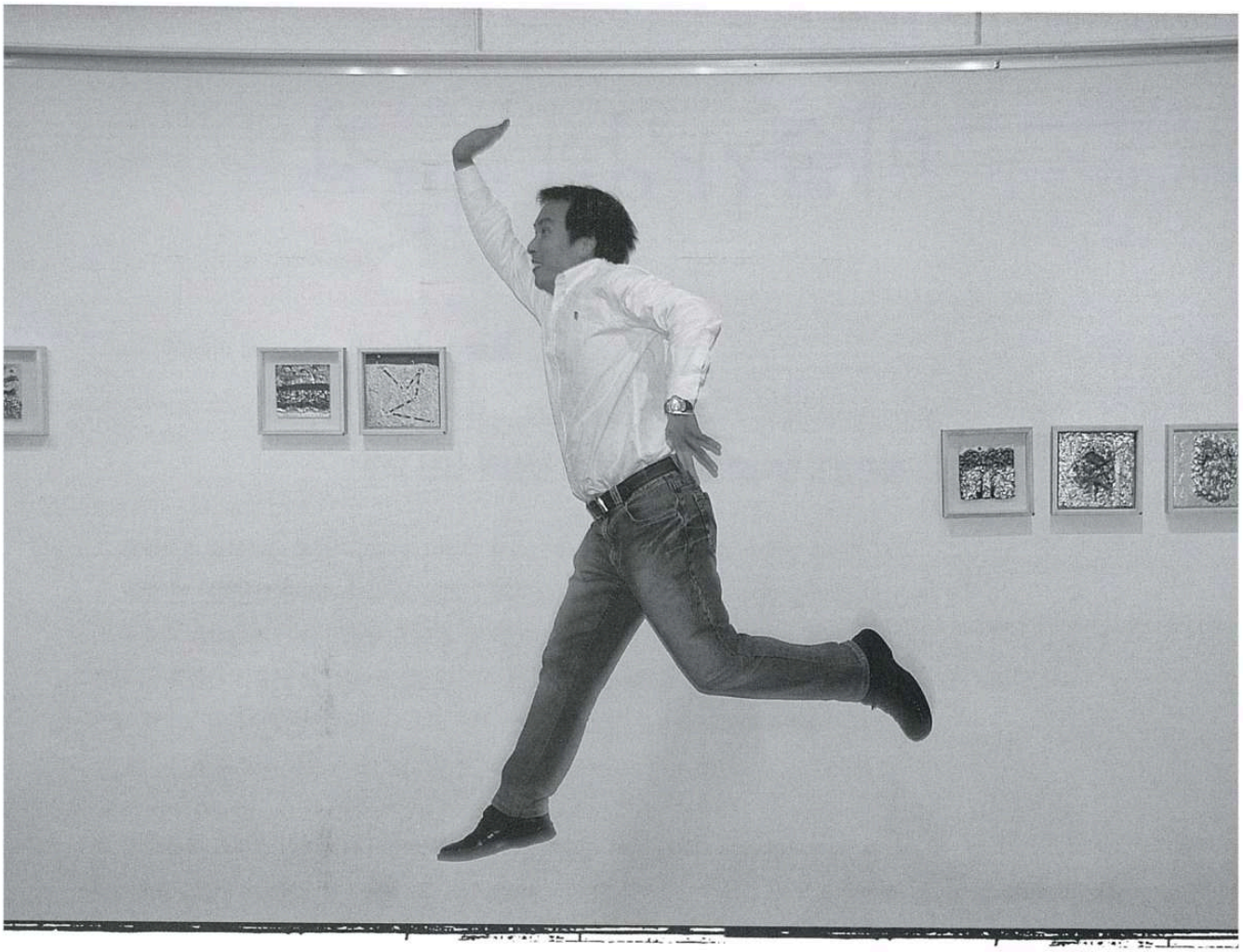
이철규 개인전
相生 – 金이야기

이 철 규(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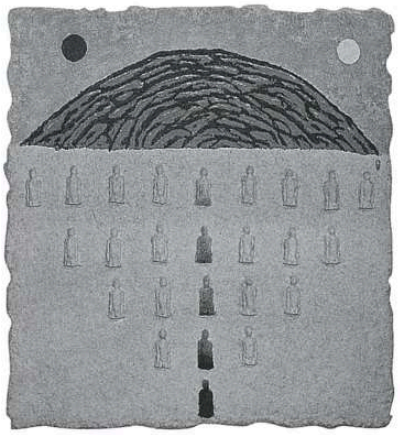
전시기간 : 2008.09.23(화)~09.29(월)
전시장소 : 교동아트센터

❀ 이번 개인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금과 한지의 결합이다. 즉 한지위에 개금과 금박기술을 이용하여 금을 입히는 공예적 요소를 회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도입 하였다.

또한 금이라는 물질의 양면가치를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만이 금이 금으로서의 그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초점은 인간의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의 가치를 상생이라는 화두로 화면상에 상징물들과 함께 혼용하여 표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각 작품들이 한지와 금이라는 기조 설정아래 자연과 인간, 산과 인간, 석불과 꽃, 해와 새 등 대비적이면서 상대적인 것들을 한 작품 안에 동거시키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2008,9. 이철규)

미술감상의 지름길

최 병 식 (철학박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고정관념의 탈피와 평소 최소한의 관심과 실천 요구

흔히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 화폭에 그려진 사물이 원래의 사물과 얼마만큼 유사하게 그려졌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사과와 꼭 같이 그려진 정물화는 한 알의 사과에서 느끼게 되는 미감이나 식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별화 된다. 사실상은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림의 사과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그림속의 사과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썩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액자 속에 넣어진 고급스러운 치장 때문에 실제 사과보다 훌륭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림 속의 사과는 이미 실용가치를 상실한 환영(Illusion)적인 차원의 사물이다.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사과는 무엇인가를 감성적으로 발생시키는 주파수를 끊임없이 세례한다. 이를테면 결실, 수확의 풍요로움이라든가 상큼한 미감적인 어떤 상태, 그 상태로부터 직결되는 매력과 인간미 또는 자연미 모두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그림의 사과는 이미 상징언어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정적 매체로서 외적인 부호를 발산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그 대상이 단순한 사물이 아닌 칼이나 권총, 시계나 건물, 인물의 표정 등이 동시에 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진전된다. 즉 그 상징성이 훨씬 강화되고 뚜렷해진다는 말이다. 여기에다 색채가 칠해진다. 붉은 색과 초록색, 노란색과 검정색, 색채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체를 앞지르는 강한 상징을 유발한다. 이를테면 흰색은 순결 공허 신비, 연두는 소생 꿈 청춘 평화, 보라는 고귀 우아 고독



신비 숭고 권위, 갈색은 우아 안정 지성 고귀를 연상시킨다. 형태와 색채를 통해 유발된 상징은 다시금 그 형태의 배치에 의한 구도와 왜곡, 묘사된 상태, 강조와 생략 등에 의해서 변형되고 색채의 농담, 혼합, 재료나 기법 등에 의해 각기 완연히 다른 차원의 상징으로 분리된다.

이를테면 사과 한 알을 만일 보라색으로 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반쪽밖에 없는 사과의 형태에 배경은 회색이라 하자. 실제의 사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상징이 유발된다. 극도의 고독일 수도 있고 배반적 비극을 연상시키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미학적으로 상징(Symbol)은 본디 그리스어의 '접합한다'는 뜻에서 연유되지만 일정한 표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리킨다. 그 종류도 다양해서 자연 상징과 상투적 상징, 관념, 기분상징, 유형화된 상징, 간접상징, 직접상징, 부호적 상징 등이 있다. 가령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면 상투적 상징이다. '13'이 불운을 상징한다면 부호적 상징이며, 구름 위에 꽃밭이 유토피아적인 것을 상징한다면 관념 상징에 속한다.

모든 미술품은 위와 같은 상징체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령 '시'가 상징적이지 못하다면 언어의 단순한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화가는 무엇을 그리더라도 상징을 내포하지 못하면 사진의 찬란한 리얼리즘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파바로티나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이 무슨 뜻의 가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곡조만으로, 음성만으로도 강렬한 감성의 소리 상징을 발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의 이해만으로도 감동적인 감흥을 세게 받게 된다.

문제는 얼마만큼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차원의 상징을 가능케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곧 미술과 예술전체의 숙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대의 전위미술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요건으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플라톤이 예술을 모방설로 규정한 차원과는 달리 얼마나 닮게 그렸느냐는 논제보다는 어떤 차원의 상징을 가능케 하고 있느냐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직접 사과나 꽃 등 물질 자체가 화랑에 등장하거나 완전 누드로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는 전위적 행위가 등장하고,

TV나 오디오를 통한 메시지의 전달을 시도하는 등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은 작가가 전달하려는 언어의 자유로운 방법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그 다양한 방법의 의도와 표현 현장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 것이냐는 상징언어 문제가 우선할 뿐이다.

아름다움의 참뜻

다양한 미의 해석과 방법론 대두
'고귀하다' 형식적 미는 옛말…개성표출은 자유롭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화가를 꼽으라면 이중섭, 박수근을 빼놓지 않는다. 이들은 분명 한국 근, 현대미술사의 고호나 고갱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시장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림값을 부르고 있으며 그나마도 작품을 직접 대해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작품세계를 보자, 옷을 입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복숭아나무 같은 가지를 타고 오르고 있다든가, 게를 잡는 모습, 머리 위에 항아리를 이고 가는 우리 여인네, 노인 몇 분이 큰 나무 밑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 성난 황소, 까마귀와 전기줄 등이 다소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려져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디에서도 이들 작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아름다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떤 작품은 성난 황소의 모습 같아 힘차고 생동감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안정된 정서에는 걸맞지 않다. 무엇인가 일어날 것만 같고 그림의 상황이 불안한 느낌으로 휩싸여 있는 듯한 예도 있다.

이들 작품뿐만이 아니다. 올림픽 조각공원에 있는 세계 각국 작가들의 조각 작품들, 그 어느 곳에서도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대신 심하게 왜곡된 대상의 형체나 파괴된 모습들, 알지 못할 추상적 조각품들이 많으며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우아한 미감과 비너스의 균형 잡힌 미감은 없다. 게다가 가끔씩 대하게 되는 행위 미술의 난해함과 인사동, 관훈동 일대를 비롯한 청담동 등의 화랑가에서는 어디에서도 미술의 전형적 아름다움이랄 수 있는 작품을 발견하기 어렵다.



미술사의 고호나 고갱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시장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림값을 부르고 있으며 그나마도 작품을 직접 대해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작품세계를 보자, 옷을 입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복숭아나무 같은 가지를 타고 오르고 있다든가, 게를 잡는 모습, 머리 위에 항아리를 이고 가는 우리 여인네, 노인 몇 분이 큰 나무 밑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 성난 황소, 까마귀와 전기줄 등이 다소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려져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디에서도 이들 작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아름다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떤 작품은 성난 황소의 모습 같아 힘차고 생동감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안정된 정서에는 걸맞지 않다. 무엇인가 일어날 것만 같고 그림의 상황이 불안한 느낌으로 휩싸여 있는 듯한 예도 있다.

이들 작품뿐만이 아니다. 올림픽 조각공원에 있는 세계 각국 작가들의 조각 작품들, 그 어느 곳에서도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대신 심하게 왜곡된 대상의 형체나 파괴된 모습들, 알지 못할 추상적 조각품들이 많으며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우아한 미감과 비너스의 균형 잡힌 미감은 없다. 게다가 가끔씩 대하게 되는 행위 미술의 난해함과 인사동, 관훈동 일대를 비롯한 청담동 등의 화랑가에서는 어디에서도 미술의 전형적 아름다움이랄 수 있는 작품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같다면 적어도 미술, 예술적 시각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떻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쾌감인가, 감각적 인식의 무엇인가, 사색을 통한 어떤 이성적 행복감인가.

본디 독일어의 'Schön'이란 미(美)의 뜻은 행위, 사상, 언어, 사물, 실험, 창작 등 여러 뜻으로 쓰였으며 근대엔 어원이 변천해서 고귀한, 좋은, 어울리는 등의 뜻으로 쓰이게 된다. 이는 곧 정신적 쾌감과 직결되는 동양의 진, 선, 미적인 뜻을 포괄하는 뜻을 지니게 되며 동서간의 다소 차이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해석이 '미학'이라는 학문 영역에 진입되면 정신적 쾌감이나 진, 선, 미에 대한 해석이 다소 견해를 달리한다. 즉 채플린의 연극은 희극적, 골계적인 미감을 자아내고 유명한 피카소의 대표작 '게르니카'는 전쟁의 참상을 그린 그림으로 비장 · 비극미를 나타내며 '모나리자'는 우아미의 전형이다. 그런가하면 순수미가 있고 숭고미가 있으며 심지어는 추(醜)의 미가 있어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뉘는 미의 원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딜타이(Wilhelm Dilthey)와 데스와(Max Dessoir)라는 학자에 의해 주창된 이 방법은 우리가 예술품뿐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야기되는 미적 상황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도 폭넓은 해석을 가하는 이론이며 설득력이 절대적이다.

우리가 어떤 비극적인 작품에서 심하게 구부러지고 파괴된 장면을 목격하면서 전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미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적 수단, 즉 메커니즘적인 것이라면 그 자체가 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고 보면 미(美)란 엄숙하고 정돈되고 침묵적인 것이거나 희극적인 것, 비극적인 것 어느 것과도 직결되며 따라서 미술품·예술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자세 역시 한 송이 국화나 장미꽃과 같은 일원적인 생각으로 그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표출하려 한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오감(五感)의 감성을 갖는 인간 구조의 감성 범주는 이처럼 그 절정인 미감(美感)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감적 일 수 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서두에서 이중섭과 박수근의 예를 들었지만 비단 그들 뿐 아니라 근, 현대의 미술사는 고전에서 규범화되고 형식화되었던 아름다움의 가치나 형식을 보다 자유롭게 개성적으로 표출하려는 의지를 표방해왔다. 그러므로 그 접근 또한 보다 가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만이 참뜻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미술의 이해 – 화랑, 미술관 자주 찾아야

반복 관찰하면 나름대로 안목 생겨

현대 미술은 더욱 그러하겠지만 일상적으로 미술은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 더욱 그 감상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예술의 예외주의(Art Exceptionalism)'라는 학술적 용어까지 생겨났다. 즉 예술과 사회는 이중구조에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모더니즘시대에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난해한 사조가 유행함으로써 그 간격을 더욱 멀게 벌려 놓았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예술이 사회 대중, 현실을 딛고 서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미술감상의 첫 번째 조건은 취미유발이며 취미에 의해 가깝게 접근해보려는 욕구를 자주 가져야 한다. 즉 화랑, 미술관을 자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지 몇 번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몇 년을 두고 반복해서 작가들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자연히 나름대로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무엇을 닮았는가하는 구체적, 형상적 비교를 하려고 한다든가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추상화의 경우는 형체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과 닮을 수가 없다. 그보다는 그 색채, 선, 면, 터치로 인해 다른 관념적 상상이 유발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유발된 상상의 깊이와 내용이 곧 미술품의 내용과 직결되며 감상자는 그 모든 것을 보다 가깝게 접근하도록 관조된 상태로 작품을 읽고 느끼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조적 상태란 일체의 현상적 인식을 지워버린 상태이므로 철저히 작품 속에 빠져들면서 잠재의식 속에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모종의 상징체를 연상해 보는 것이다.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어떤 물질도 담을 수 없듯이 가능한 한 미술품 앞에 섰을 때는 우선 작가의 의도를 읽어 내리는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 훈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특히 한 작가 · 유파의 시기별, 경향별 여러 작품을 꾸준히 감상해 봄으로써 보다 쉽게 파악해 낼 수 있다.

셋째로는 작품이나 작가에 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이중섭의 은박지 그림의 의미를 알려면 당연히 당시 6 · 25피난 시절의 작가가 처한 어려웠던 생활의 면면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쉬울 수밖에 없다.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역시 오랜 미국 생활에서 저며오는 고국을 향한 애절한 서정적 감성에서 비롯된 조형 언어였다. 운보의 바보그림의 배경이 있고, 피카소의 독특한 해부방식에도 그 상황의 특수성이 있다. 운보 김기창이 바보 그림을 그리게 된 큰 계기가 76년에 부인 우향 박래현 여사의 절명으로 인해 본격화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피카소는 아프리카 흑인 조각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어느 작가든 그 작가를 형성하는 삶과 예술의 배경이 있고 화집, 카탈로그, 잡지, 서적 등을 통한 사전 이해는 극히 중요한 감상법의 지름길이다.

넷째는 미술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교양차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판화란 어떤 기법이 있고 에디션(Edition) 번호란 어떤 의미인지, 석, 동판화, 실크스크린이란 무엇인지 기법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판화를 소장해도 의미가 감소된다. 왜 인쇄 매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이다. 유화에서도 크게 보이는 기름이나 주요 도구, 조각에서 브론즈가 왜 여러 작품의 복제가 가능한 지 그 이유 등을 모르고서는 그 분야의 이해가 불가능하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미술품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불필요하다는 생각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술은 크게 보아 분명히 고도의 정신적 미감을 창출하는 인간 가치의 구현을 근본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의학, 공학, 수리학적인 분야 등과는 달리 무조건 쉽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독선이며 아집이다.

컨스타블은 '참된 취미는 어중간한 취미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요건이 선행될 때 우리 주변의 미술관, 화랑에서의 미술감상은 보다 차원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나아가서는 한 국민의 문화 GNP와 직결되는 것이며 문화시민의 길로 나아가는 정도이기도 하다.

한국화에 대하여

엄 기 석(회원, 한국화가)

일반 회화

우리 나라 회화의 시작은 보통 청동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암각화(岩刻畵)에서 그 최초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진 회화가 종이, 붓, 먹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부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부터 회화는 사대부와 승려, 직업화가들에 의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또는 감상하기 위해 그려졌다. 이들 회화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묵의 운용(運用)과 같은 회화기법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표현주제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전통시대의 회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한국화는 서로 비슷비슷하고 현대 서양화처럼 작품의 개성이 한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서양화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그 기초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훨씬 알기 쉽게 느껴진다. 따라서 한국화의 다양한 주제 및 그림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등을 조사하여 보았다.



1. 산수화

산과 강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한국화의 대표적인 화목(畵目)이다. 동양에서 산수화란 자연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노장사상(老莊思想)에 바탕을 둔 자연관은 토대로 하여 발전된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일찍부터 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여 10세기경부터는 회화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1) 조선시대 이전의 산수화

우리나라에서 회화다운 회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4세기경 삼국시대부터인데 이때까지의 소재는 인물의 표현이 중심이었다. 산수화가 그려진 것은 인물화나 타분야에 비하여 좀 늦은 약 5세기 초라고 여겨진다. 이 시대의 회화에 관한 자료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거의 대부분으로, 산수화의 초기 양식도 고분벽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솔거의 노송도(老松圖) 일화처럼 회화에 얽힌 고사가 전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순흥의 고분벽화나 전돌에 표현된 공예적인 산수문양뿐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회화가 발달했던 고려시대에는 산수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였고 중국과의 교섭에 의해 북송과 원나라의 화풍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산수화

조선시대가 되면 고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화풍을 반영한 산수화들이 발달하게 된다. 산수화의 주제로 자주 다루어졌던 것으로는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적벽도(赤壁圖)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 초기의 산수화(1392~약 1550)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화풍은 고려시대에 전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곽파 화풍과 남송원체 화풍, 미법산수 화풍이며, 선비화가들은 당시에 새롭게 유행하던 명나라의 원체 화풍과 절파 화풍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중기의 산수화(약 1550~1700)는 초기의 안견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절파 화풍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명대의 미법산수화풍을 포함한 남종화풍을 수용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조선 후기의 산수화(약 1700~1850)는 중기에 유행했던 절파 화풍이 쇠퇴하고 남종화풍이 유행하였으며, 남종화풍을 토대로 한국적인 산수화풍인 진경산수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서양화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조선 말기의 산수화(약 1850~1910)는 남종화가 화단의 압도적인 주류를 차지했던 시기이다. 김정희가 중심이 되어 조희룡, 허련, 전기 등이 활약했으며, 이색적인 구도로 참신한 화풍을 구사했던 김수철과 복고적인 경향의 장승업도 있다. 근대에 이르면 조선 말기부터 크게 유행하던 남종문인화가 계속해서 화단의 주류를 차지하는 상황이 조석진, 안중식 등의 화가에 의해서 이어졌다. 그러나 서양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유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화단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재면에서는 이전의 상상의 세계를 그리던 것에 비해 생활 주변의 일상적인 장면을 소재로 한 사경산수화(寫景山水畵)가 발달하게 되었다. 표현하는 방법도 단일한 시점에 의한 원근의 처리와 수묵보다는 채색을 즐겨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개성적인 화풍이 많이 생겨났다.

(3) 산수화의 화풍(畵風)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시대나 한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을 대표하는 양식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통칭 화풍이라고 부른다. 그 속에는 당시의 시대정신과 독특한 구도와 필묵법들이 구사되기 마련이다.

각각의 화풍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소재와 구도, 바위와 나뭇가지 등에 사용한 준법(法), 필묵의 운용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1) 이곽파(李郭派) 화풍: 중국 북송 때의 이성과 곽희에 의하여 성립된 화풍으로 곽희파라고도 한다. 이 화풍은 뭉게구름처럼 보이는 침식된 토산이 화면의 중심부에 위압적으로 배치되며 그 좌우에는 작은 산들이 연이어 용트림하듯이 위치한다. 바위는 아래로부터 빛을 받은 듯한 부자연스런 조명효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점차 밝게 묘사하여 깊이감을 강조하였고, 공기 중의 습기나 시간 및 계절의 변화까지도 포착하여 표현해내는 공기원근법(空氣遠近法)을 완성하였다.

2) 원체(院體) 화풍: 중국의 궁중 화원(畵員)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화풍으로 산수화와 화조화 부문에서 독특한 양식이 생겨났다. 주로 작은 화첩이나 부채 등의 화면에 화려한 채색과 장인적인 기교를 추구한 장식성이 강조된 그림을 그렸다. 형상에 대한 심상의 표현이 적고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경향이 강했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에 산과 바위는 도끼로 자른 듯한 거친 필치로 묘사하였다.

3) 마하파(馬夏派) 화풍: 중국 남송 때의 화원인 마원과 하규에 의해 형성된 화풍이다. 이당의 남송원체 화풍을 근거로 더욱 새로운 화풍을 이룩하여 명나라 초기 절파 화풍의 기초가 되었다. 구도는 화면을 대각선으로 나누었을 때 아랫부분에 치우치며, 그 나머지 부분은 공간을 이루어 여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국 강남지방의 안개 낀 부드러운 풍경과 이를 감상하는 인물표현이 두드러지고, 준법은 부벽준을 주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유행하였다.

4) 절파(浙派) 화풍: 중국 명나라 초기의 화가인 대진이 창시하여 오위, 장로 등 주로 화원화가들이 구사하였던 화풍이다. 절파라는 명칭은 이 화풍의 주요 작가들이 대부분 절강성 출신이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마하파의 화풍을 기초로 하여 중경을 삽입시킨 복잡한 구도와 거칠고 호방한 필치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추구하였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이르면 감각적인 특징을 더욱 대담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광태사학(狂態邪學)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에 강희안이 도입하여 중기에 주로 유행했다.

5) 미법(米法)산수 화풍: 중국 북송 때의 문인화가인 미불, 미우인 부자가 창시한 화풍이다. 점을 여러번 겹쳐 찍어서 형태를 표현하는 미점준(米點)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곡선의 흙산이나 멀리 보이는 나무 등을 그린다. 특히 비온 뒤나 짙은 안개ㅏ 낀 습윤한 자연경관을 그릴 때 즐겨 사용하였다.

6) 남종화(南宗畵):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남종문인화라고도 하며, 약칭하여 남화라고도 부른다. 인격이 높고 학문이 깊은 문인들이 여기(餘技)로 수묵과 엷은 채색을 써서 내면의 세계를 표출한 그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에 유입되어 후기의 심사정, 강세황, 이인상을 거쳐 말기의 김정희파에 의해 더욱 큰 세력을 누리면서 근대 화단으로 계승되었다.

7) 안견파 화풍: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안견의 화풍을 따랐던 화가들의 초칭이다. 이 화풍은 이곽파 화풍을 토대로 형서오디었는데 구도적으로는 경물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넓은 공간개념 및 단선점준과 같은 필법등에서 한국적인 특징을 보인다. 안견파 화풍은 조선 초기와 중기의 궁중행사나 사대부들의 계회등을 그린 기록적 성격의 그림들이 이 화풍을 따르고 있는 등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8) 진경산수(眞景山水) 화풍: 대체로 17,18세기에 등장한 실학사상과 때를 같이하여 나타난 경향으로 재래의 화보를 본받아 그리던 산수에서 벗어나 직접 사생(寫生)을 통하여 실경을 그린 실경산수의 일종이다. 정선의 작품들은 '동국진경'이라 하여 높이 평가를 받는데, 그것은 종래에 중국화가들이 그린 작품들을 무조건 베낀다거나 관념적으로 산수를 그리던 풍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4) 산수화의 주요 주제

현존하는 회화작품은 조선시대의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15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장르의 일반회화가 발달되었으며 다루어진 주제도 중국적인 것, 한국적인 것으로 다양하다. 특히 산수화는 중국과 중국화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도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동일한 주제의 그림이 반복되어 제작되었던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옛 회화를 대할 때 느끼는 특이한 점으로 서로 다른 작가가 동일한 주제를 시대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어떻게 그려냈는지도 흥미롭다.

1)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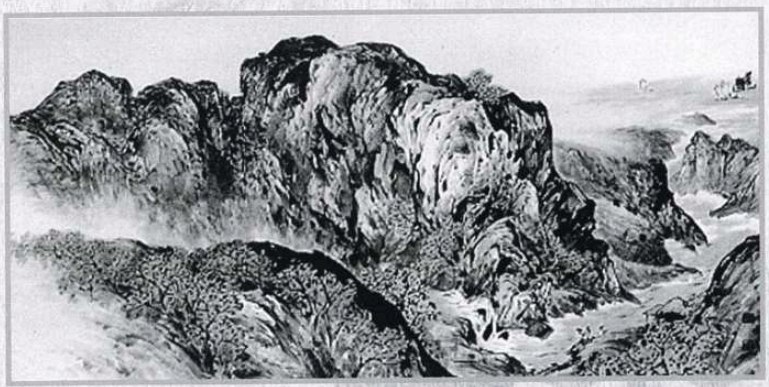
중국의 소강과 상강이 만나는 동정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것이다. 조선 전기의 작품으로는 안견이 제작한 것으로 전하는 소상팔경도가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백자청화의 공예적 문양으로도 많이 그려진 주제이다.

2)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사계절의 변화를 초봄, 늦봄, 초여름, 늦여름, 초가을, 늦가을, 초겨울, 늦겨울의 여덟 장면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각 그림은 구도상으로 볼 때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는 일각구도 또는 변각구도이기 때문에 초봄과 늦봄 등 각 계절마다 한쌍씩 마주보게 세트화되는 특징이 있다.

3) 적벽도(赤壁圖)

북송의 소동파가 호북성의 명승지인 적벽강을 유람하고 지은 〈적벽부〉를 소재로 그린 것이다. 폭포수가 있는 산의 정경이 보이고, 그 앞에는 배 위에서 벗과 함께 이 절경을 감상하고 있는 소동파가 등장한다.



2. 인물화

산수화와 더불어 동양회화의 주요한 분야로 유교적인 현실주의와 교화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주제에 따라 고사의 인물, 도교나 불교 주제의 인물, 풍속화, 초상화 등으로

나뉘어진다. 화풍은 대체로 필선의 변화 없이 유려하게 다루는 고개지(顧愷之) 양식과 필선의 굵고 가는 차이를 주는 오도자(吳道子)양식으로 크게 나뉘어 변천하였다.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적인 화풍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초상화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1) 고사인물화

옛이야기 속의 인물을 주제로 하여 그 인물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그림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화제로는 행락도(行樂圖), 탁족도(濯足圖), 관폭도(觀瀑圖) 등 다양하다.

1)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 중국 당나라 때 안록산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분양왕에 봉해지고 평생 벼슬에서나 가정생활에서 한번의 액운도 없었으며 늙어서는 자손들을 많이 얻어 부를 누렸다는 곽자의의 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화려한 집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노니는 자손들을 즐겁게 지켜보는 노부부를 화려한 채색으로 그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귀영화와 오복을 누린 표본으로 조선 후기에 많이 그려졌다.

2) 탁족도(濯足圖): 산간계속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도사를 그린 것으로 단오날 임금이 이 그림을 그려넣은 부채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더욱이 이 그림은 〈맹자〉 이루(離婁)편의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닦는다"는 구절과 관련되어, 모든 일은 자기가 처신하기에 달렸으므로 각기 수신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3) 관폭도(觀瀑圖): 폭포를 바라보는 인물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의 주제는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중국 강서성 여산에 있는 폭포를 바라보고 지은 〈망여산폭포수〉라는 시에서 왔다. 여산은 그 경치가 뛰어나서 여산진면목(廬山眞面目)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특히 폭포경치가 빼어나다고 한다.

4) 송하인물도(松下人物圖): 소나무 아래 비스듬히 누워있거나 앉아서 솔바람 소리를 듣는다든지 술을 거르는 인물을 그린 그림이다. 여러 가지 고사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인물은 속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유자적한 도연명으로, 그를 흠모하여 그가 남긴 〈귀거래사〉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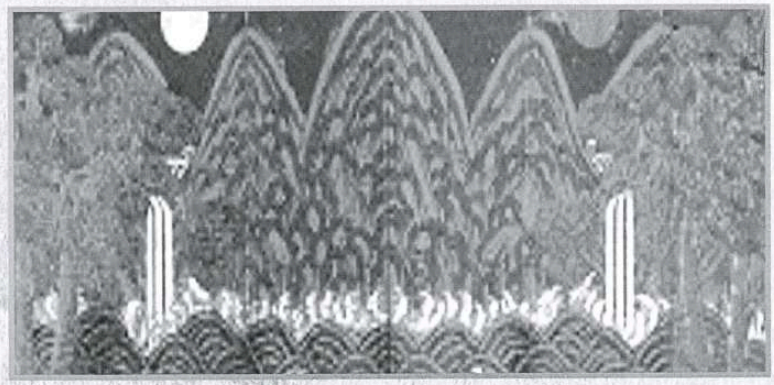
(2) 도석인물화

도교적인 주제의 인물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선도이며, 불교적인 주제으 ㅣ인물화는 선종화나 조사도, 나한도 및 산신도 등이 포함된다. 신선도에서는 신선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도상(圖像)을 살펴보면 그림 속에 등장한 신선을 알 수 있다.

(3) 풍속화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의 정경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풍속화의 주인공도 인물이지만 초상화처럼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풍속화의 주제는 자연과 사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사를 표현한 것과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것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넓은 의미의 풍속화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일상생활을 표현한 그림이다. 즉 왕실이나





조정의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혼상제와 세시풍속 같은 것들을 묘사한 그림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달리 좁은 의미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잡다한 생활모습, 양반들의 유한(遊閑), 농사풍경 따위를 다룬 것이다.

1) 조선 이전의 풍속화: 조선 이전의 풍속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로, 50여 기의 고분 중에서 4세기에서 6세기에 제작된 초기와 중기의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시기의 고분들은 다실묘(多室墓)였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공간이 충분했고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이들 벽화의 내용에는 행렬도, 수렵도, 무용도와 같은 각종 행사를 그린 그림들과 부엌, 방앗간, 푸줏간, 마굿간 등 당시 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다.

2) 조선시대의 풍속화: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여러 기록화들에 풍속적인 요소가 많이 그려졌다. 한국적인 풍속화가 절정을 이룬 시기는 조선 후기로 당시 실학사상이 발달하면서 민족의 자의식을 고취하였기 때문이다. 즉 산수화 분야에서 한국적인 산수화라고 할 수 있는 진경산수가 발달하였듯이 인물화 분야에서는 풍속화가 대단히 유행하였다. 무엇보다 이 시대 풍속화의 백미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그림들이라 할 수 있다. 김홍도는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원형이나 X자형 구도를 이용한 짜임새있는 포치와 강하고 생명력있는 필치로 인물을 묘사하였고 신윤복은 주로 한량(閑良)과 기생들의 로맨스를 소재로 하였으며 산수를 배경으로 부드러운 필선과 세련된 색채를 구사하여 에로틱한 장면을 표현하였다.

(4) 기록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들을 사실에 충실하게 그리는 기념적인 그림이다. 조선 초기부터 각종 궁중행사를 그린 진찬도(進饌圖), 반차도(班次圖), 연회도(宴會圖), 능행도(陵幸圖) 등의 의궤도를 비롯하여, 사대부들 사이의 기사계, 독서당계, 하관계, 연정계 등과 같은 계모임(契會)을 기념하는 계회도, 그밖에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적인 사건을 주제로 하여 그린 동래부순절도와 같은 그림들이 이에 해당된다. 기록화처럼 사건이나 행사를 그릴 때에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사실을 묘사하기 때문에 당시의 풍속이나 풍물을 잘 알게 해준다.

1) 의궤도(儀軌圖): 궁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식행사의 내용을 기록한 의궤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궁주행사의 의식과 늘어선 관원들을 정확히 배치하며, 그림의 앞과 뒤에는 행사의 내력과 좌목(座目), 참가인원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고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부감법을 사용하여 행사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처리하였고, 세필과 진채로 정성껏 그렸으며 건물은 계화법(궁궐이나 누각등의 건축물을 자로 대고 정밀하게 그리는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2) 계회도(契會圖): 사대부들의 계회를 기념하여 그렸던 그림이다.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계회는 만 70세 이상의 문인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기로회와 관아의 동료나 과거를 함께 본 동년 또는 그 밖의 친구들끼리의 모임인 일반 계회가 있다. 계회도는 모임을 기념하고 기록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가자 수만큼 여러 장 그린 후 나누어가졌다. 따라서 계회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이 여러장을 그리기 위해 붉은 줄을 사용하여 화면을 귀획한 흔적을 흔히 볼 수 있다.

(5) 초상화

나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정인물을 그린 그림이다. 옛날부터 초상화는 터럭 한 올이라도 닮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 아래 대상인물을 똑같이 그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인물묘사를 통하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의 '전신사조(傳神寫照)', 즉 전신이 강조되었다. 이는 인물의 외적인 생김새를 본따서 그리는 사형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특질을 뛰어넘어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불변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을 뜻한다.

1) 조선이전의 초상화: 이미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를 통하여 삼국시대부터 초상화가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극히 빈약한 상태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봉안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보이며, 아울러 공신 및 일반 사대부들의 초상화 등도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역시 남아있는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2) 조선 전기의 초상화: 우선 조선 전기에는 어진을 비롯하여 많은 공신상이 제작되었다. 이때는 얼굴을 옅은 황토빛의 살색으로 칠한 후 이목구비를 얼굴색보다 조금 짙은 살색선으로 그려나가는 특징을 보이며, 옷의 윤곽선 및 주름을 상징적인 몇 개의 선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선이 중심이 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간결한 느낌을 준다.

3) 조선 중기의 초상화: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 및 반정과 같은 각종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공신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얼굴을 옅은 담홍색의 살빛을 주로 칠하고, 전기의 선을 위주로 하던 화법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위에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였다. 즉 얼굴의 높고 낮은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동양 전래의 오악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4) 조선 후기의 초상화: 조선 후기에 공신상은 거의 제작되지 않고 어진과 일반 사대부상이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훈염법의 사용이 그것이다. 훈염법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중경이라는 화가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얼굴을 하나의 커다란 마당으로 보고 얼굴을 움푹한 부분에 붓질을 거듭함으로써 어두운 느낌을 주고, 도드라진 부분은 붓질을 덜하여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3. 영모,화조화

새와 짐승, 꽃 등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 영은 새의 날개 깃털을 의미하며 모는 짐승의 털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모라 할 때는 새그림만을 칭하다가 근세로 내려오면서 새와 짐승의 그림을 모두 영모화라고 일컫게 되었다. 화조화 역시 꽃과 새를 소재로 하여 그린 것이며 초충도, 화훼도 드도 크게는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들 그림의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 꼬과 새는 대부분 동양문화의 오랜 전통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모란꽃은 부귀를, 원앙새는 부부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1) 영모화조화의 분류

1) 영모화: 새와 짐승인 금수를 그리는 것으로, 본래는 새그림만을 지칭하였으나 점차 새와 짐승의 그림까지를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영모화가 생겨났다. 중국에서는 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실적인 묘사능력이 뛰어난 화원들이 주로 그렸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대부화가와 화원 모두에게 애호되었다. 또한 영모화를 그린 화가들은 섬세하고 치밀한 필치에서 활달한 필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사하여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그림을 그렸다.

2) 화조화: 중국 오대의 황전과 서희 이후 본격적으로 그려지다가 북송대의 궁중 화원들에 의하여 더욱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민왕의 작품으로 알려진 화조화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많은 화조화 작품이 전해내려오며 기법도 구륵법과 몰골법이 고루 사용되었다.

3) 초충도: 풀과 벌레를 주제로 한 그림이다. 풀 초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꽃과 과일등을 포함하는 말로 초충도에는 실제로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이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초충도는 세필을 요하는 그림이어서 사실적인 묘사기법에 익숙한 화원들이 많이 그렸다.

4) 화훼도: 꽃과 풀 또는 꽃피는 식물을 그린 그림이다. 문인화의 발달에 따라 많이 제작되었는데, 매란국죽의 사군자 수묵화도 엄격히 말하면 이 범주에 속한다.

(2) 소재와 상징적 의미

한국화의 화가는 나타내고자 하는 글의 뜻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회화의 소재로 바꾼 다음 화면에 알맞게 배치하였다. 따라서 선택한 두 소재가 계절이 달라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그 의미에 충실하기 위하여 함께 그렸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그림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반복적으로 그렸으므로 거의 비슷한 주제의 그림이 많다.

1) 노안(老安): 갈대의 노(蘆)와 기러기의 안(雁)을 결합하여 그린 것이 노안도이며, 이 그림이 크게 유행한 이유는 "늙어서 편안하게 지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백록(百綠): 향나무와 사슴을 그린 그림은 향나무 백(柏)과 사슴 록(鹿)의 음을 빌려서 온갖 벼슬을 받는 복록을 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슴 백마리를 그린 그림 또한 백록도(百綠圖)가 된다.

3) 모질(牡): 〈예기〉에서는 80,90세를 모( )라고 하는데, 그 중국음은 고양이 묘(描)자의 음과 같다. 중국에서 80세의 노인이라는 뜻의 질(牲)은 나비 접(蝶)자와 중국음이 같으므로 모질의 두 글자에 해당되는 동물인 고양이와 나비를 결합하여 나타낸다. 그러므로 80세나 혹은 90세를 살아서 장수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양이나 나비를 그렸다.

6) 연생귀자(連生貴子): 우리나라의 경우 원앙새는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하지만 중국에서는 금슬이 좋은 부부에게서 영리한 자식이 나온다고 보아 귀한 자식이라는 뜻이 있다. 원래 연꽃은 7월에 피며, 철새인 원앙새는 더운 여름에는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그려서 "귀한 자식을 연이어 잉태한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했다.

7) 해로(偕老): 바다새우는 등이 굽어서 바다의 늙은이(海老)라는 별칭이 있는데, 그러한 새우의 모습은 부부가 한평생 같이 지내며 함께 늙는 해로를 뜻하게 된다.

8) 금여만당(金餘滿堂): 금붕어는 중국어에서 금여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금붕어를 가득 그린 그림은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한 부자가 되라"는 뜻이 된다.

4. 문인화, 사군자

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 선비 계층의 사람들이 취미나 여기로 그린 그림이다. 화가의 내면세계나 사의를 표현하여 간결하면서도 격조 높은 문인풍의 그림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문인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외형을 충실히 묘사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묵희(墨戱)의 대상으로 삼았다.

(1) 문인화

시인이나 사대부들이 취미삼아 그리던 그림으로, 화원이나 직업화가들이 짙은 채색과 꼼꼼한 필치로 외형을 묘사하여 그린 북종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남종화라 부르기도 한다. 북종화와 남종화의 구분은 명나라 말기에 동기창과 막시룡이 당나라 때의 선종을 남북으로 구분하던 것을 따라서 회화를 화가의 출신 성분과 화풍에 의하여 구분 지은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남조화가로 분류된 사람들을 보면 화가의 출신성분이나 직업이 화풍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명대 말기에 이르면 남종화는 구도, 필묵법, 준법, 수지법 등에서 정형화가 이루어져 이 때부터 남종화를 숭상하고 북종화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생겨나 문인화가뿐만 아니라 직업화가들에게까지 남종화가 널리 파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중기에 중국으로부터 남종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중국과는 달리 대체로 화가의 출신성분이나 신분 또는 학식에 관계없이 진보적인 문인화가들에 의해 먼저 받아들여졌다.

(2) 사군자



춘하추동에 해당되는 네가지 식물, 즉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그림이다. 매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먼저 꽃피우며 난초는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고,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며,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한다는 각 식물 특유의 장점을 군자, 즉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한 것이다. 사군자는 다른 소재에 비해 형태가 비교적 간단하여 서예의 기법을 이용하여 그릴 수 있으므로 서예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즉 글씨가 그 사람의 인품을 반영한다는 원리의 연장으로 사군자도 화가의 인품을 반영한다고 믿어 문인화의 소재로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사대부들이 묵죽, 묵매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사대부는 물론 화원들도 대나무 그림을 많이 그렸고, 또한 15,16세기부터는 백자의 표면에도 나타났다. 사군자화의 기법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조선후기에 〈개자원화보〉가 전해지면서부터이며, 특히 남종문인화의 본격적인 유행으로 널리 그려지게 되었다.



5. 민화

일반 서민들이 애호하던 그림으로 생활공간을 장식한다거나 민속적인 관습으로 제작되었던 실용화를 가리킨다. 민화는 대개 본격적인 미술수업을 받지 않은 무명화가이거나 떠돌이 화가들이 그렸으며, 서민들의 일상생활 양식이라든지 관습 등에 바탕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일회적인 창작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 계승되었다. 따라서 민화는 일반회화보다 묘사의 세련도나 품격이 뒤떨어지지만, 익살스럽고 소박한 형태와 대담한 구성, 현란한 색채로 특징지워지는 양식은 오히려 한국적인 미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상적인 생활과 밀착되어 세시풍속과 같은 행사용으로 제작하거나, 집안 곳곳의 문, 벽장, 병풍, 벽 등을 장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나쁜 귀신을 막는 주술적인 성격의 액막이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따라서 민화는 그 내용이나 발상등에서 일반회화보다 한국적인 정서를 더 많이 반영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민화의 화제는 일반 서민들이 항상 꿈꾸던 아들딸 많이 낳고 높은 벼슬에 올라 호의호식하면서 장수하고자 하는 기복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1) 십장생도

늙지 않고 오래도록 장수하고자 하는 염원을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의 자연물로 구성한 그림이다. 해, 달, 산, 물, 구름, 돌,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대나무, 불로초, 복숭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재는 중국의 신선사상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어 왔지만 이를 조합하고 도식화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것이다. 십장생도는 주로 정월 초에 새해를 축하하고 복받기를 기원하던 세화나 회갑등에서 장수하기를 희망하여 그려졌던 그림이며, 일정한 형식과 도식적인 형태에 짙고 화려한 채색을 하여 장식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2)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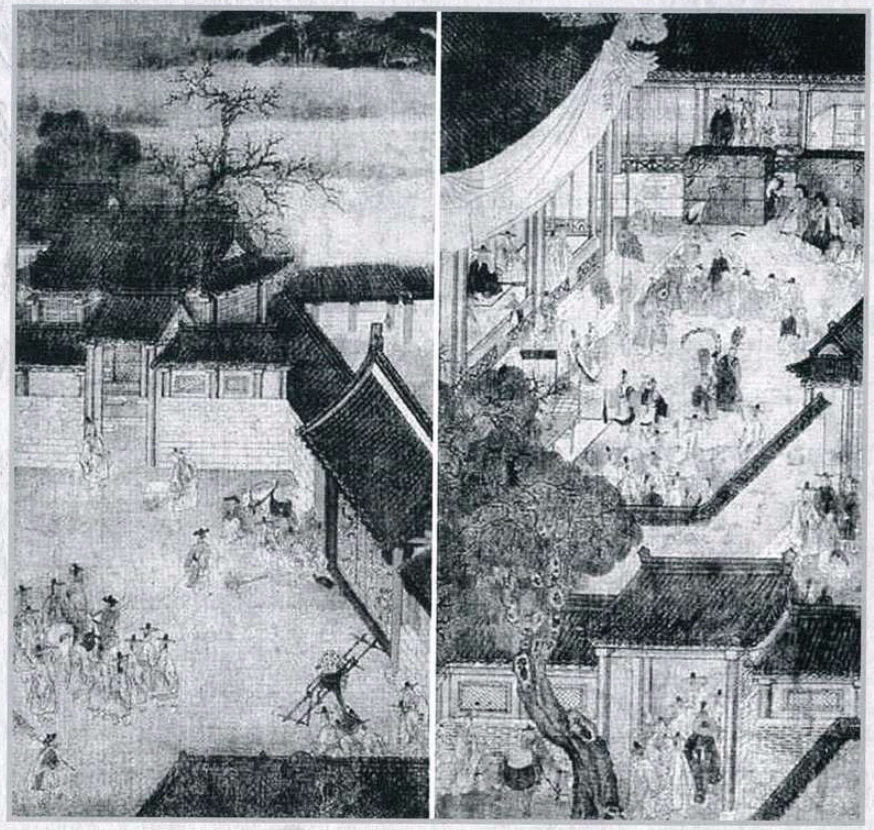
삼강오륜을 비롯한 유교적인 윤리관을 나타내는 여덟 글자를 그림으로 풀어서 나타낸 것이다. 여덟글자는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이며, 효제도는 크게 볼 때 문자도의 일종이다. 문자도는 글자와 그림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글자의 획 속에 각 글자에 해당되는 중국의 고사를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고사도의 일종이기도 하다. 각 글자 속에는 서너 가지의 유명한 일화가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 글자의 획이 흐트러지고 일화의 내용보다는 상징할 수 있는 소재가 문양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양상을 띤다.

(3) 책거리그림

책을 비롯하여 선비와 관련이 깊은 문방구와 각종 기물들을 조합하여 구성한 그림이다. 형식은 크게 탁자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경우와 서안을 중심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탁자를 중심으로 한 책거리 그림은 서양화법에 의한 입체법과 불완전하나마 투시도적인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안 책거리 그림은 전통적인 역원근법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다. 주로 사랑방이나 서재를 장식하는 병풍그림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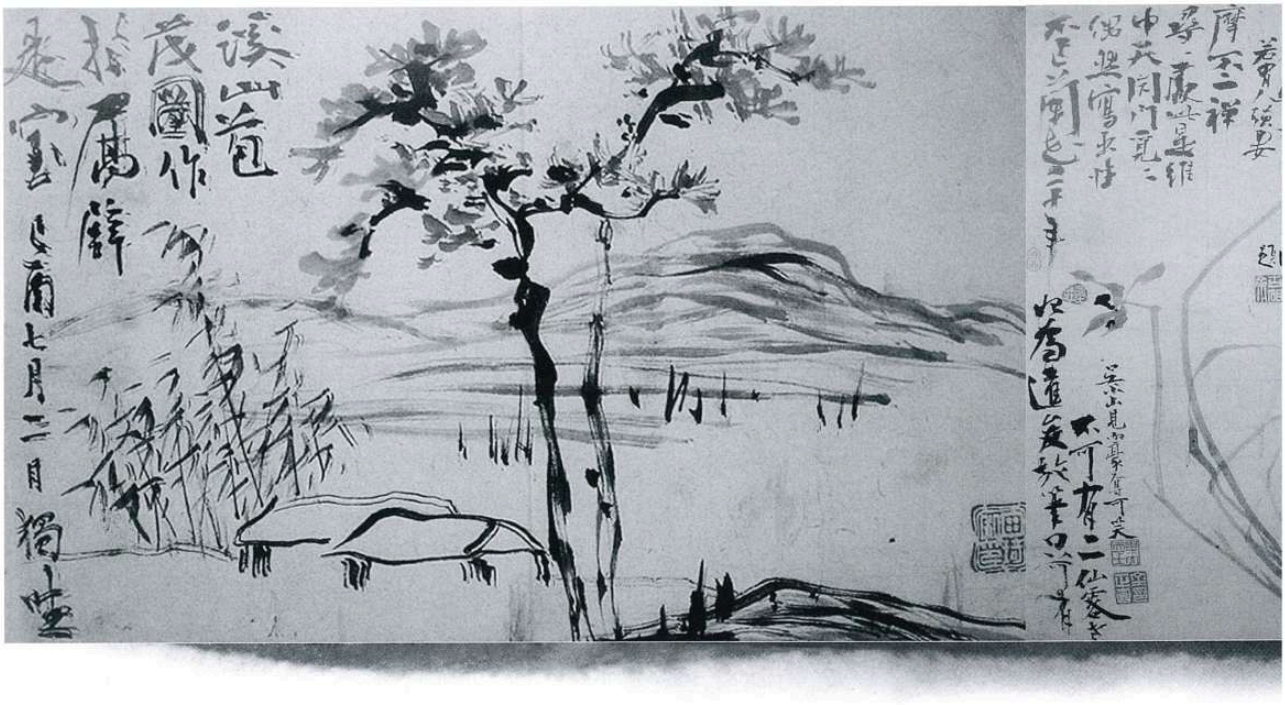
(4) 평생도

옛날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내용을 태어나고 자라서 벼슬하고 죽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놓은 그림이다. 주로 여덟 폭 병풍으로 되어 있는 평생도의 주요 내용은 돌잔치, 글공부,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꽂고 사흘 동안 거리를 순회하는 유가놀이, 사모관대 차림으로 말을 타고 결혼하러 가는 신행길, 지방의 현감이 되어 부임하는 감사도임, 다스리는 마음을 관내 순시하는 그림 및 환갑잔치를 하고 늙어서 왕의 예우를 받는 봉조하의 그림들이 주제로 되어 있다.



참고사진1

참고사진2



문인화의 정신적 배경으로서의 선(禪)사상

이 철 규(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중국에서 선교사사이 최초로 전해진 것은 520~526년간에 보시달마(菩是達磨)에 의해서이다. 이때의 선사상은 자기 자신만을 독선적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 아닌 널리 중생을 위한 전미개오(轉迷開悟)에 힘을 쓰는 이타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다. 명상을 하는 수행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이 타이의 법리에 따른 행위가 또한 수반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달마이후 혜능에 이르는 6대에 걸쳐 이와 같은 선사상의 특수성은 중국인에게 강한 실증주의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인도사상으로서의 선사상과는 달리 극히 현실성을 띤 중국적 선사상을 이룩하였으니 깊은 산속 사찰에서 은거하며 사찰에서 도를 깨닫기 위하여 정진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일상생활에서도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일상적 선이 제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종의 정신은 깊은 산사의 자기수양으로부터 완전히 현실 인생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으니 물을 긷고 나뭇짐을 지는 동안에 아니 기뻐 웃고 성나 욕하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다 선을 통할 수 있고 묘도(妙道)를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자유자재한 생명력이야 말로 종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다시 현실의 인생으로 돌아온 최초의 부르짖음이었으니, 중국역사상으로 본다면 일대종교혁명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선사상이 중국 회화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 한 것은 당대 수묵ㅎ산수화의 등장부터이다. 당대 수묵산수화의 배경에는 선종의 정신과 긴밀한 정신적 관계를 맺고 있다. 당、오대이후의 중국 회화에는 회화와 선과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 많고 특별히 화가가 많은 것이 하나의 반증이다.

참고사진3



참고사진4

선과 그림과의 본질적인 일치는 '묘오(妙悟)'라 할 수 있다. '妙悟'의 경지란 선이나 시와 같이 선가으; 수양적 소양을 말한다. 이러한 '묘오(妙悟)'의 경계란 결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정신으로 참수하여 일체으; 망상과 잡념을 떨어버리고 초원적인 무아의 세계에 직입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회화와 문잉화에 있어서의 선이란 인간의 정신상에 있어서 심상 혹은 명상(Meditation)을 집약하여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묘오(妙悟)'의 고차적인 체험은 특별히 선과 화의 일치된 경계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가와 화가의 '묘오(妙悟)'의 경계는 다 같이 산수 아름다운 절경을 택하여 그 중에 정거(靜居)하여 참오(參悟)하게 된다. 그들은 산수에 의탁하여 禪을 수련하고, 대자연의 진실 되고 순수한 미감에 젖어 현실적 것으로 부터 초월하는 것이다. 선가가 아름다운 산수자연 속에서 현기(玄機)를 얻고 대자연의 미감으로부터 정신상으로 형태와 정신이 합치되는 경계에 도달하게 되는 사실은 산수화가나 문인화가의 詩、書、畵 일치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산수화가와 자연애의 관계는 곽희(郭熙)의 '임천고치(林泉高致)'에 여실히 나타나 있거니와 남종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왕유(王維)의 생활과 풍경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동기창(董基昌)은 왕유를 남종의 시조로 보았으며, 왕유의 시가 거의 대부분 자연을 노래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자연의 산수로부터 선가사상(禪家思想)에 바탕을 둔 '묘오(妙悟)'의 경지에서 대자연에 귀의하려는 속세초월사상(俗世超越思想)은 한말에서 唐, 兩宋에 이르러 최고로 발달되어 유교학자들이 이 선종의 초월사상을 받아들였다. 선종의 초월사상이란 첫째로 악(惡)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속세를 초월하고, 둘째는 대자연과 합일(合一)하기 위하여 속세를 초월하고, 셋째로 새로운 대자연의 세계를 깨닫기 위하여 초월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종사상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선종사상에 바탕을 둔 초월사상은 송대 문인화가들의 유교적 초월과 결합하여 형식미가 가미된 시、서、화일치사상(詩、書、畵一致思想)이 나왔으며 원말사대가(元末四大家),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석계(石溪), 팔대산인(八大山人), 석도(石濤)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선사상이 중국 문인화의 사상에 근저가 되었다고 볼 때 중국 문인화를 모범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문인화에도 그 연향이 있었음을 역급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인화 특히 말기의 문인화가 중국 문인화에 많은 감화를 받았음이 반증되는 근거로는, 첫째 청대의 문인화가들이 송, 원대의 문인화를 임모(臨摹)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조선말기 문인화가들이 송, 원대 특히 원말사대가의 그림을 임모하면서 내재된 사상까지 이해하고 있었고 둘째 원당(阮堂) 김정희(金正喜)가 선(禪)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 문인화에 이해가 깊은 점, 셋째 원당 김정희가 허유(許維)의 호를 대치(大癡) 황공망(黃公望)에 비유하여 소치(小癡)라 할 정도로 중국 문인화를 모범으로 삼았던 점, 넷째 조선 말기에 청대문화와의 왕성한 교류로 인한 중국화보의 유입과 김정희가 淸의 시인묵객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송, 원대의 문인화가 선가사상에 깊은 교섭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말기의 문인화가 宋, 元代의 문인화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합일하는 정신성을 강조하는 선사상(禪思想)이 조선말기 더 나아가 한국문인화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8. 9.)

참고사진1 : 김정희(金正喜), 부작란(不作蘭), 55×30.6
참고사진2 : 조희룡(趙熙龍), 홍매도(紅梅圖), 27.5 30.2
참고사진3 : 허연(許鍊), 설옹관(雪翁關), 7036
참고사진4 : 전기(田琦), 계산포무도(溪山苞茂圖), 24.541.5

산수화의 새로운 면모를 위하여

이 승 훈 (회원, 대성중학교 교사)

산수화의 발전은 전통 산수화의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창작을 하며 공모전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있는 양식에 연연하다가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발상과 우리시대의 정신과 내용을 저버리고 만다. 동양 미술의 궁극적 지향점은 달관에 의한 진선미 추구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수화는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지고 있다. 산수화의 정신사적 역사와 그 소재와 내용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찾도록 하였다.

산수화는 서정과 아취를 담고 유람하는 선비의 정신과 꿈속 이상향까지 내포하고 있다. 고연희의 '조선시대 산수화, 그 필묵의 정신사' 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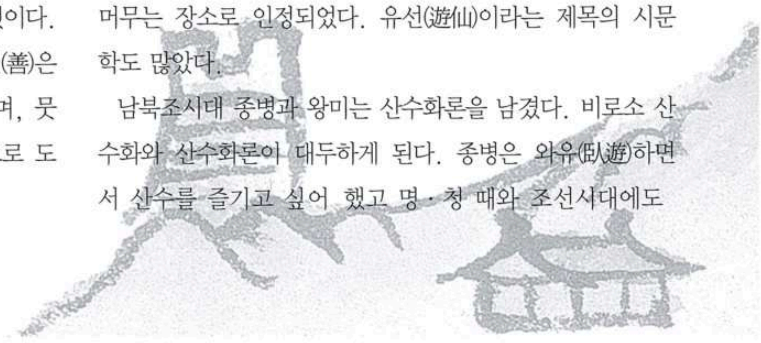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는 공자의 말이다. 유학자인 유향(劉向)은 산수란 인(仁)의 덕을 갖춘 인격체이다. 산은 높고 높아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는 것이요. 초목이 살고, 뭇 생명이 자리 잡고, 새와 짐승이 무리지어 살고, 달리는 짐승이 쉬며, 보배로운 것들이 번성한다. 또한 물은 군자의 덕에 비유된다. 두루 흐르고 사사롭게 치우치지 않으니 덕을 닮았고, 이르면 생명을 살려내니 어짊을 닮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순리대로 하니 의로움을 닮았다. 지혜로움과 용기와 성찰과 포용과 교화를 닮았다는 것이다. 안빈낙도로도 산수가 읽히고 있다. 노자는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뭇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

장자도 한 말씀 하셨다. 숲과 못으로 들어가 너른 들에 살며 고요한 곳에서 낚시하고 무슨 일도 일삼지 않을 뿐이다. 이는 강해(江海)의 사람이며 세속을 피한 사람이니 여유로운 자가 좋아하는 바이다.

이는 다분히 산수관(山水觀)이 관념적이긴 하지만 동양의 큰 덕목을 지녔다. 산수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산수화의 발생에 따른 배경을 알아보면, 중국에서 산수 감상이 주제로 표현되는 문학과 예술 등장은 위진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위진 남북조 직전 한나라말기는 변란이 잦고 살육이 도처에 있으며 무법천지가 횡행하던 시기에 산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삶은 참담했다. 위진시대 후반 동진의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는 당시 산속 은둔자들의 성공담을 상상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자유롭고 싶은 욕망의 긴장 속에서 산수문학은 출범했다. 이때 문인 들은 은둔자를 가리켜 '산수를 좋아하는 처사' 라 묘사하고 '속세를 초월한 유유자적함 속에 국화와 난초의 향기가 스미는 삶' 이라고 추앙하였다. 이때부터 정원에 가산(假山)이 조성 되었다. 동진의 화가 고개지는 높은 인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물의 배경으로 산수로 처리하였다. 산수는 신선사상으로까지 진전되었다. 산수는 신선이 머무는 장소로 인정되었다. 유선(遊仙)이라는 제목의 시문학도 많았다.

남북조시대 종병과 왕미는 산수화론을 남겼다. 비로소 산수화와 산수화론이 대두하게 된다. 종병은 와유(臥遊)하면서 산수를 즐기고 싶어 했고 명·청 때와 조선시대에도



와유록이란 제목으로 산수 기행문집을 꾸며져 여러 권 전한다.

우리에게 전하는 최초의 산수화는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전자건이 그렸다고하는 전해지는 북경 고궁박물관의 유춘도(遊春圖)이다. 우리나라는 백제의 벽돌에 새겨진 산수문전(山水紋塼)에서 엿볼 수 있다. 여말선초(麗末鮮初)까지 이렇다 할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당대(唐代)에는 청록산수화가 발달하여 이사훈 이소도 부자가 대표적이다. 수묵산수화도 당대 출현하여 송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왕유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고려 후반 이색 문집에 산수화 감상하고 제화를 쓴 것으로 보아 산수화가 있었을 것이다. 고려말과 조선초에 그려진 그림은 청산백운(靑山白雲)이라는 그림을 왕실에서 내어 보고 시문을 짓게 하였다고 한다. 안견이 그린 그림에 제화시문을 지었다. 서거정이 쓴 '푸른 산은 그윽하고 그윽함이여/흰 구름 아득하고 아득함이여' 라는 시구에서처럼 희 구름은 언제나 존재하는 무변영원의 순간을 노래했다. 극심한 변혁이 노도처럼 일어나는데 지극히 고요한 산수경이 나왔다.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가.

수묵산수화가 발전하면서 날씨의 변화를 그려내려는 시도가 보인다. 춘하추동 사계절이 보이는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가 그려졌다. 제목도 춘경(春景), 춘산(春山), 하경(夏景), 풍우(風雨), 추경(秋景), 설산(雪山), 풍설(風雪) 등이다. 안견의 사시팔경으로 전하는 늦가을은 어두워진 하늘의 거뭇한 색과 쌓인 눈이 흰빛의 색채대비를 볼 수 있다. 산은 희여백으로 하고 하늘을 먹빛으로 선염하여 설경을 나타낸 것이다.

소상팔경(瀟湘八景圖)는 중국의 소강과 상강이 흘러들어 호수를 이루는 동정호 일대의 경관을 그린 덕이다. 이곳은 경치가 빼어나 시인들이 시로 읊었다. 그림은 북송대 시작하여 남송 및 원대 유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 명종때 진화와 이제현 등에 시를 읊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가장 기록이 많은 것은 조선초이다. 대략 24수가 전한다. 이 문집이 '비해당소상팔경시권' 이며 이승소와 서거정, 강희안 등의 문집과 김시습의 문집에서도 보인다.

꿈 속 이상향을 그린 산수화로 문학에서 몽유록(夢遊錄), 기몽시(記夢詩) 등에서처럼 꿈이라 의탁하면서 마음 속 심경을 곡절하게 토로해내기도 했다. 그 기록으로 남긴 꿈 이야기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 그림인 몽유도원도(안견그림)이다.

16세기 조선은 유교의 기반이 닦이고 있었다. 조선 중기인 이때 성리학자들은 선대의 산수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때 중국은 절파양식의 미치광이 같은 구도와 붓질이 혹평을 당하고 있었는데 조선중기는 이 화풍을 더욱더 좋아했다. 이점은 조선 후기 산수화풍으로 연결되었다. 17세기 화원화가인 김명국은 '설중기려도' 를 보는 것처럼 대표적이다. 시인인 김창흡은 김명국의 그림을 보고 '산 아래가 끊어진 데 나귀탄 선비가 자나가고, 솔바람에 옷자락이 날린다.' 고 읊었다. 예조참판을 지낸 강백년은 김명국의산수화는 '태초의 세상을 상상하게' 한다고 했으며 활달한 필치가 오히려 초월적 정신세계로 이어졌다.

산수인물도가 산수화와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산수 속 인물의 비중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 제목은 탁족도(濯足圖), 기려도(騎驢圖), 어부도(漁父圖), 문답도(問答圖), 관폭도(觀瀑圖), 수면도(睡眠圖)로 인물의 정신세계를 더욱 중시했다. 이백이 여산(廬山)을 지나가다가 향로봉의 폭포를 바라보면서 지은시가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사랑한 소재이다.

무이구곡을 그린 산수화는 주자가 살며 노닌 곳을 찾아 그린 그림이다. 요즘 영화가 촬영된 곳을 찾아가 즐기는 것과 같다. 주자(朱子)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대의 학자 주희(朱熹, 1130~1200)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무이산(武夷山)의 아홉 골짜기를 그린 무이구곡도는 15세기 서거정의 글에서 처음 나온다. 이황은 무이구곡도를 펼쳐놓고 애정을 토로하였다.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고연희 지음, 돌베개, 2007.10.2)

무이구곡과 주변의 강호를 노래한 주자의 시들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림파의 형성과 이들의 정계 등장과 관련이 깊다.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 등이 본격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사림파가 강호에 뿌리박고 있고, 중국 무이산의 구곡은 사림들이 숭모하는 바가 크고, 구곡이 경영 되었다.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 등이 대표적이다. 주자의 무이도가 10수와 무이구곡도가 사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중국까지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림들은 그림을 그려 주자를 숭모하는 마음을 내보였다. 단순한 자연경치의 서경만 보인 것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성정을 음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이곡의 시조는 봄의 꽃을 통하여 이상향을 그려 보이며, 제 삼곡은 잎과 산새에서 자연의 이치를 보인다. (표 참조)

순	읊은 것	의 미
第1曲	관암(冠巖)	잡초 뒤덮인 들에 안개가 걷히니 먼 산이 그림 같은데 솔밭에 술통을 놓고 벗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노래
第2曲	화암(花巖)	푸른 물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낸다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명승지를 모르니 알게 하고 싶다는 것
第3曲	취병(翠屛)	푸른 나무에 산새가 위아래로 우짖는 데 반송이 바람을 맞으니 여름 경치가 그지 없다. 취병은 푸른 병풍같이 나무나 풀로 덮인 절벽을 뜻함.
第4曲	송애(松崖)	못 가운데 바위 그림자가 온갖 빛으로 잠겼으니 수풀 속 샘이 깊도록 좋아 흥겹다.
第5曲	은병(隱屛)	냇가의 은병정사(隱屛精舍)는 무척 깨끗한데 여기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음풍영월하며 소일하고 싶다. 은병은 굽이진 곳이 있어 눈에 띄지 않는 절벽을 말한다. 율곡이 은거하면서 사는 해주의 고산을 지칭할 수도 있다.
第6曲	조협(釣峽)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 자연을 즐기는 가하고 물은 뒤, 황혼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며 돌아온다는 것이다. 조협은 낚시질하기 좋은 골짜기를 말한다. 자연합일을 뜻한다.
第7曲	풍암(楓巖)	가을 색깔이 좋은데 맑은 서리가 엷게 치니 절벽이 흡사 수놓은 비단 같다. 찬 바위에 홀로 앉아 집으로 돌아갈 집을 잊고 있는 자신을 읊은 것.
第8曲	금탄(琴灘)	달이 밝은데 좋은 거문고로 서너 곡을 노래하니 옛 가락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즐긴다. 옥진금휘란 아주 좋은 거문고를 뜻하며, 금탄은 거문고를 타듯이 물소리가 흥겹게 들리는 여울목을 말한다.
第9曲	문산(文山)	'돌산에는 해가 다 저물고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는데 노는 이는 이곳에 와보지 않은 채 이 겨울 경치가 별로 볼 것이 없다는 말만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문산이야 말로 풍류를 즐길만 한 곳임을 자랑하는 것이다.

제 일곡은 관암(冠巖)을 읊은 것이요, 제 이곡은 화암(花巖)을 읊은 것, 제 삼곡은 취병(翠屛)을 노래했다. 제 사곡은 송애(松崖)를 노래했다. 제 오곡은 은병(隱屛)을 노래했다. 제 육곡은 조협(釣峽)을 읊은 것, 제 칠곡은 풍암(楓巖)을 읊은 것, 제 팔곡은 금탄(琴灘), 제 구곡은 문산(文山)의 경치를 읊은 것, 문산이야 말로 풍류를 즐길만 한 곳임을 자랑하는 것이다.(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정병헌 이지영 지음, 돌베개,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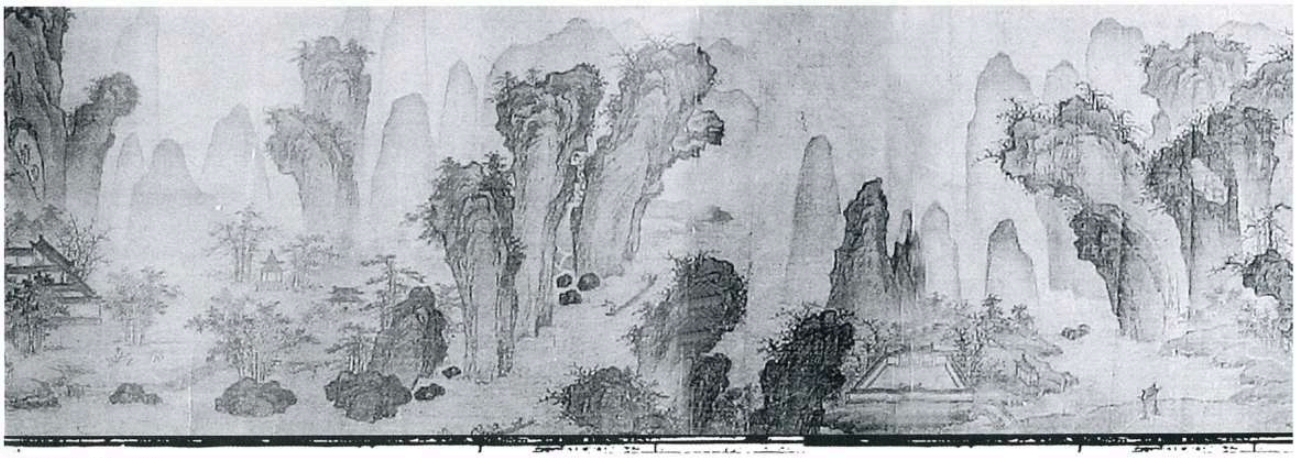
16세기 무이구곡도 가운데 이성길(1562~?)의 작품이 우수하다. 이성길은 의병을 일으켰고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두루마리에 그려졌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 그려진 것이다. 4m에 이르는 긴 그림이다. 제1곡엔 충우관(?右觀)건물이 단정하게 표현되고 다왕암 봉우리가 우람하게 그려졌다. 봉우리마다 학, 은자, 서적 등이 자리 잡고 선학암, 장선암, 서선암, 대장봉 있다. 중국에서는 충우관이 무이궁을 뜻하는 것으로, 무이산의 가장 오래된 궁전이며 또 천보전, 무이관, 만년궁이라고도 하는데 당조의 천보연간(742~775년)에 건설되었다. 이 그림은 중국 해내기관의 판화집의 그림에서 온듯하다.

관료 문인들이 모습을 그린 계회도, 아취 있는 모임을 기념한 산수화, 유람을 하면서 그린 산수화, 서정성을 겸비한 산수화 등이 전통적 내용의 산수화이다.

조선시대 산수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승업이 닦아 놓은 새로운 감각은 김수철과 홍세섭이라는 걸출한 선구자가 나왔다. 산수화의 매너리즘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담한 구도와 과감한 생략과 수채화에 방물한 색채들의 새로운 시도와 감각으로 신감각파나 이색회풍으로 지칭되는 작품을 남겼다. (홀로 나귀타고 미술 숲을 거닐다. 이원복, 이가서, 2008, 전주국립박물관장)

양화와 다른 뜻을 두고 산수화가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닥터스'와 '소설 동의보감' 이야기로 다시 반추해보면, 의료행위를 주제로 한 소설이면서 서로 대조적이다. '닥터스'는 의대 출신의 의사들 사이에 일어난 얘기인데 비정하다. 출세를 위하여 서로가 밟고 올라서려 하고 상호간 인격적으로 교류나 신뢰 없이 냉혹하고 비정한 시기와 암투를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은 의료기능 못지않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격과 인품을 중요시한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도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질을 첫째로 꼽았다. 서양의학은 기(技)와 술(術)같은 기능을 중요시했고, 동양은 의사의 기능뿐 아니라 전인적이 인격 즉 도의 경지를 문제 삼고 있다. (한벽문집 제2호, 동방예술연구회, 월전미술관, 1993) 법정 스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전통 산수화의 정신에 힘입어 새로운 다짐과 창작에 노력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성길, 무이구곡도

오늘날 산수화를 그린다고 볼 때, 어떤 정신사로 규정해 볼 수 있을까? 한 때 조선 후기 때 진경산수화의 정신을 이어 받기위해 실경이라는 풍경화를 즐겨 그렸고, 많은 전시회가 열렸다. 우리 산천을 그리는 것은 최고로 여겼다. 사대주의 적인 발상을 떨치고 필선의 자유로움과 구도의 자유분방한 가운데 양화의 구도법을 차용하면서 서서히 양화와 같은 형체로 발전해갔다. 이러한 양식의 그림들은 일본제국주의 때 발생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부터이다. 지금도 그 정신적 이념은 고쳐지지 않고 굳어진 것이다.

유행하고 있는 공모전의 작품을 보면 자못 한탄이 안 나올 수 있을까. 소재의 편협성과 정신의 한계성, 기법의 단조로움이 창의성을 해치고 있다. 숲과 나무, 농촌, 골짜기, 들판 구석, 호수, 후미진 농촌, 허물어지는 담장이나 건축물....등의 소재에서 뛰쳐나와야 하고, 내용도 다양해야하며, 기법도 새로워야한다. 작품 형태는 액자틀에서 벗어나 권축으로 이어진 그림이나 두루마리 그림 등을 그려보고, 자주 감상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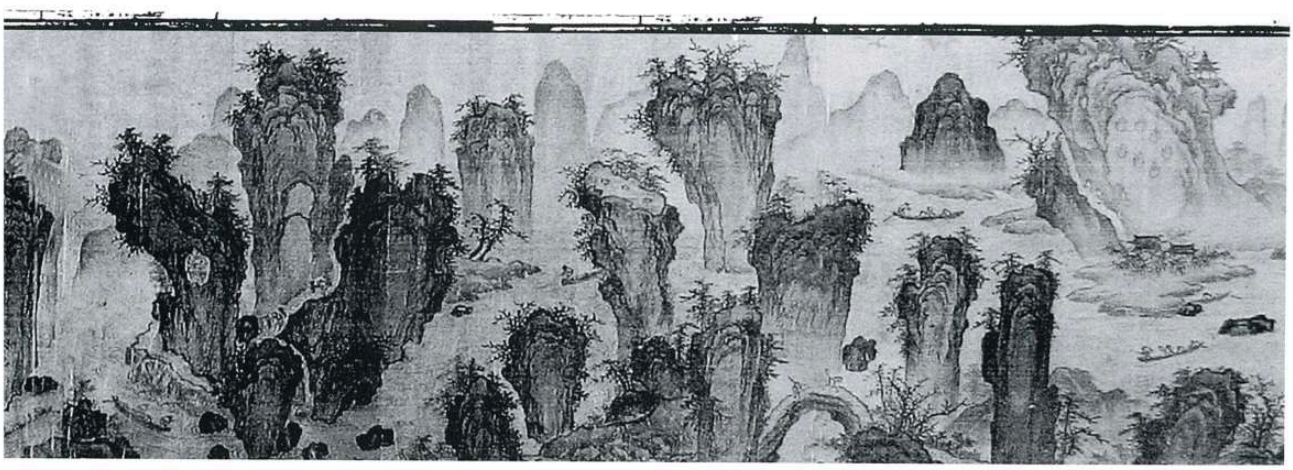




우리가 산수화의 진로를 위해서라면 공모전의 한계와, 심사의 한계성을 넘고, 산수화의 정신성을 잘 반영하여 교육하고 심사하며 전시하고 이 점을 잘 알고 감상해야 한다. ICT 시대, 디지털시대 하면서 그림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산수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서정적이고 인간답게 하는 교양은 그림에 있다. 특히 산수화는 특히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육체적 기능을 위해서만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참고문헌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정병헌 이지영, 돌베개, 2002
그림 속에 노닐다, 오주석, 솔출판사, 2008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고연희, 돌베개, 2007
한벽문집 제2호, 동방예술연구회, 월전미술관, 1993
홀로 나귀타고 미술 숲을 거닐다. 이원복, 이가서, 2008



화가 김치현씨를 찾아서...

안 순 금(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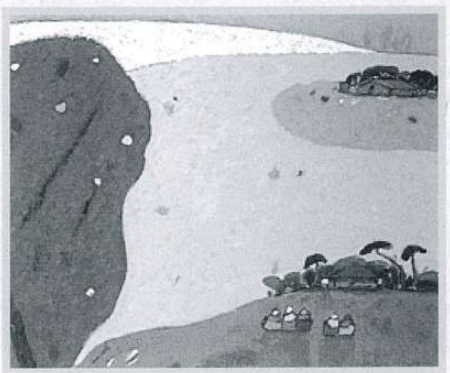


'예치과' 전시에서 김치현 선생님과 대화

❀ 화가 김치현 선생님을 가까이서 뵙고 작업실을 한번 씩 구경(아마 문 앞을 들어설 때부터 정중히 노크를 하고 쭈뼛거리며 들어가야 할 정도로 선생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으니 이 '구경'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듯하다) 하며 전시장이 아닌 곳에서 작품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전통고에 재직하면서 부터이다. 그 당시 선생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활짝 웃으며 내 이름을 가지고 놀리시던 모습에서 편안한 이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올 봄 퇴직하고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스페인 학생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건강한 모습의 선생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 " 정~말 퇴직하기 참 잘하셨어요." 라는 말에 "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 한 가지가 퇴직한 것이야 " 라며 답하신다. 정말 그랬다. 선생님의 작업실에 들렀을 때 여기저기 쌓여있는 그림이며, 정리되지 않은 물감들과 이젤 위에 놓여있는 그림을 보며, 아 이분은 진즉 퇴직하셔서 그림을 그리며 살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건강도 물론 좋아지셨지만 " 오늘 오전에 그린 그림이야" 라며 캔버스 위에 펼쳐진 그림을 보여주시고 한지를 오려 붙였다는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작업에 정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예치과'에서 초대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은 그동안 주로 고향의 정취가 담긴 서정적인 그림들을 파스텔톤의 색을 사용하여 그려 왔다. 미술평론가 김선태씨는 선생님의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화가 김치현의 이전 작업은 고향의 정취가 풍겨 나오는 향토적 서정성을 담아낸 것들이다. 뭉게뭉게 아롱져 피어나는 구름 마냥 산천의 모든 풍경을 부드러운 색채로 수놓았다. 색채의 연금술사와도 같은 파스텔 색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작품은 인상주의 화풍이 표현주의 화풍으로 번안되어 작가만의 독자적인 조형성을 담과 있었다. 마침내 파스텔 색조는 강한 원색과 더불어 흡사 몇 가지의 색실로 무늬를 수놓은 타피스트리 느낌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그림은 맑고 담백하고 청명한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보는 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2004.2 .미술평론가. 예원예술대 교수. 김선태)



봄봄 / 53×45.5cm



장생 / 40.9 × 31.8cm

그러나 최근 선생님의 그림에서는 민화적 요소를 가진 내용이 나오는데 십장생의 소나무, 구름, 학, 산, 달, 해 등에서부터 물고기, 호랑이, 국화 등 소재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해 오시던 작업 위에 전통과 민족이라는 내용을 더 하고 한지와 닥(종이의 원료)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때로 한지를 섬세하게 오리고, 다시 그것을 캔버스에 붙여서 색과 어우러지게 하여 형식적인 면 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한국적인 정감을 갖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한국성과 전통성에 대한 추구는 한지를 접목한 고서적 낙장과 전통문양 십장생 등 갖가지 문양으로 색지를 칼로 정교하게 오려내어 작품에 콜라주한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또한 그것은 결과적으로 회화와 한지공예의 접목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작가는 바로 그 출구를 한국성에서 발견하고자 한 것이며, 그 해답은 전통한지와 민화적 특성으로 한국성과 전통성에 대한 추구는 한지를 접목한 고서적낙장과 한자문양 십장생 등 갖가지 문양으로 구체화된다.....그것은 바로 자신의 관점과 현대라는 시점을 통해 전통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조형언어를 실험하고 점검하여, 그만의 조형언어를 재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2004.2 .미술평론가. 예원예술대 교수. 김선태)

나는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의 환한 웃음이 참 좋았다. 작품에 대해 설명 할 때 즐겁고 신나 보이는 모습에서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거듭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전시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은 나에게 앞으로 긴 시간동안 지침서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며 짧은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흙과 함께 사는 도예가 이명복 씨를 찾아서...

엄 기 석(회원, 한국화가)

단풍잎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맑은 수채화 같은 가을의 끝자락에 산외 초입에 있는 도예작가 이명복 선생님의 작업실 '도꼼'을 찾았습니다. 휴일인데도 부지런한 작가답게 열심히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작업실 가득히 채워져 있는 여러 모양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의 내면의 세계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의 성형기법은 물레를 통하여 기를 빚어낼 때 한쪽 손가락은 기의 바깥면에, 그리고 또 한쪽 손가락은 기의 내면에 밀착시키고 기의 기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두 손가락을 기의 양면에 강하게 접촉시킴으로써 오목면과 볼록면이 연속적으로 굴곡진 소용돌이형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우선적으로 점토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부드러운 질감의 맛을 최대한 발산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는 성형기법을 통해 생성된 형상은 기의 상하가 균일한 원기둥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여기에 나사못이나 소용돌이처럼 위나 아래로 나아가면서 한쪽이 좁아지는 삼각형을 부착시킴으로써 작품의 주체에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건조하기 전에 작가가 원하는 대로 기를 짓눌러 형태의 변형을 자져왔으며, 일반적으로 물레 성형된 기가 지니고 있는 굽이 없다는 점이 그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형태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그의 이러한 성형방식은 극히 이례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물레성형의 경우 거의 건조되었을 때 굽을 깎으면서 기의 표면도 판판하게 다듬어 버리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예가 이명복은 우선 이러한 통상적인 관례를 깬 성형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그의 독창성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그의 도예작품들의 형태미를 관조함에 있어 시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그의 도예작품들은 독특한 형태들이 빚어내는 조형미를 강조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동심세계화 환경보호라는 의미를 내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도예의 특징이 형태의 강조와 담백한 유약처리라는 점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약으로는 흰색으로 발색되는 활석매트, 녹색으로 발색되는 녹유, 녹슨 철의 발색을 가져오는 산화철, 그리고 황토색으로 발색되는 소금유가 주종을 이룬다. 또한 대부분 여러가지 유약들을 혼합하여 시유했지만, 두꺼운 기면층을 유발시키는 유약은 가능한 억제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시유상의 특징은 tm프레이 시유를 기본으로 하였으되 유약을 기의 전면에 골고루 뿌리지 않고 어느 정해진 방향에서만 시유함으로써 의외로 기의 표면에 먼지가 끼어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하고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한층 대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입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최병길(철학박사,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그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면 형태상으로는 고대의 기둥과 또는 촛대의 형상이 주종을 이룬다. 가능한한 흙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특징을 그대로 살리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이러한 형상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탑을 연상하게 한다. 염원을 가지고 한 개 한 개 쌓아 올린 돌탑들, 아마 기도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작가 이명복은 흙을 만지며 소성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고, 우주의 원리와 일치되는 심정으로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의 작업실 '도꼼'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의연하게 서있다. 가을하늘과 단풍잎, 그리고 촛대를 닮은 그의 작품들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염원을 기약했던 돌탑처럼, 또는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밝게 비치는 촛대처럼 동일시를 경험하고 있다. 그가 만든 물상들은 평범한 흙에서 다시 탑이 되고 촛대가 되어 그리고 주변의 산과 나무와 냇가의 물소리와 하나 되어 자연으로 우주로 회귀 되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향상 따뜻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듯 동심으로 향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물상과 내가 하나 되어 또 다른 영역으로 안내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양버들 / 600×900mm

그의 최근 작품은 분청이 대부분이다.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섬세하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형상과 문양들이다. 흙에 대한 이병복 작가의 느낌은 다음과 같은 그의 작업노트에서 읽을 수 있다. '나의 감정과 마음까지도 부드럽고 관대하게 하는 점토는 다른 재료가 가지지 못한 갖가지 방법과 느낌으로 나의 동반자가 되어준다. 작품에 대한 열망과 진신을 찾기위한 갈망에서 감정을 돌출하게 하며 행복과 기쁨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흙을 만지며 지내온 세월이 적지 않은 이명복 선생의 모습의 진정성은 그가 만든 작품들에 또는 생활자기에 투영되어 있다. 흙과의 인연이 운명임을 아는 작가이지만 그는 늘 겸손하다. '내 손에 만들어져 나와 시선이 마주치기를 기다리는 작품들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내가 참 못났다. 그냥 미안한 생각이 자꾸든다' 겸손한 그의 심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심성이 그로 하여금 흙과 하나 되고 자연과 합일되어 다시 원초적 우주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는지 모른다. 소박하고 욕심없이 백자를 만들었던 조선의 도공처럼 순순한 심성이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흙과 하나 되어 살아온 그의 족적에 박수를 보내며 그가 만든 작품들이 우리의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는 여유로운 작품들이 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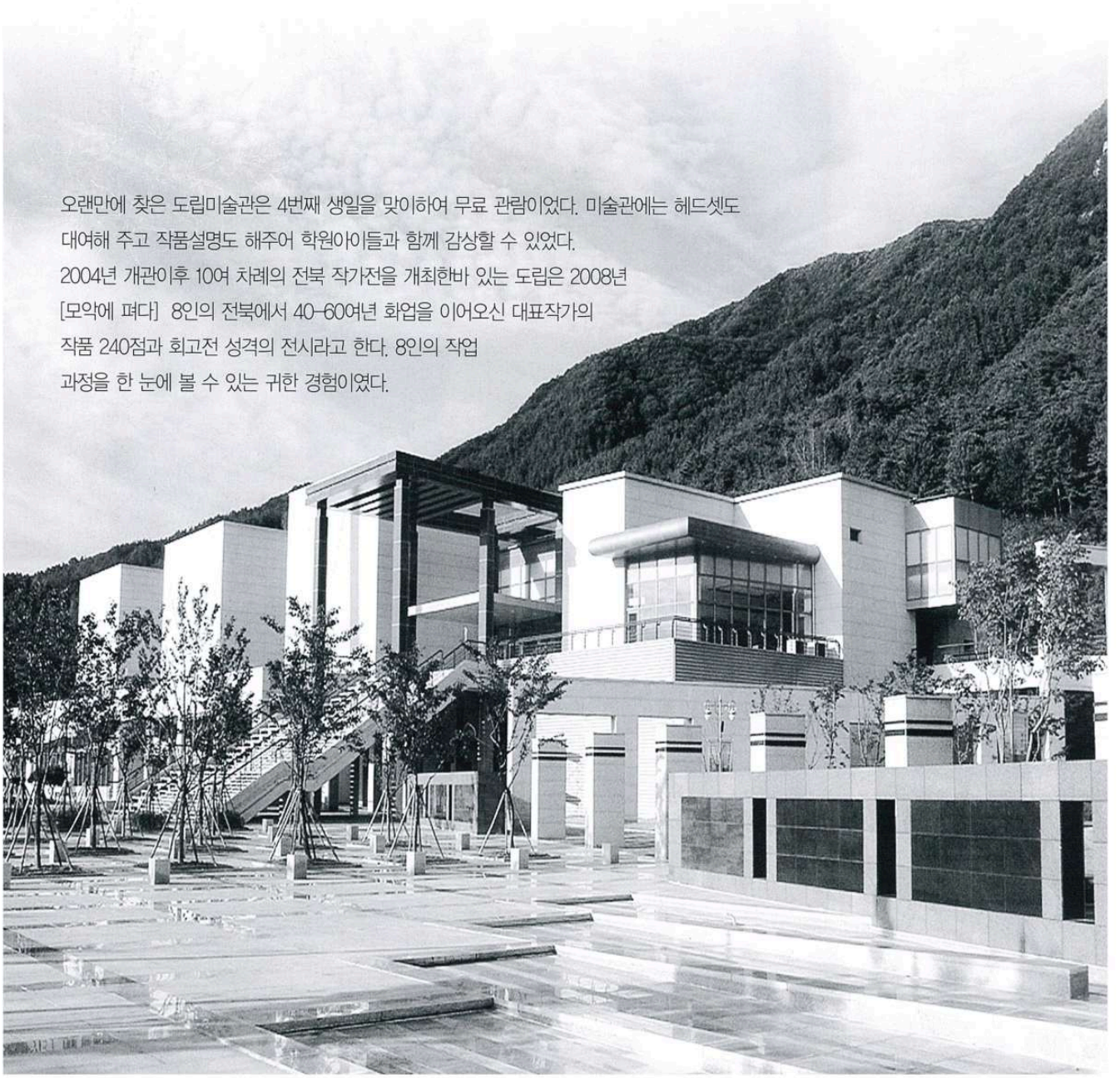


Lee Myung Bok

- 1988 전주대학교 예체능대학 산업미술학과 졸업
- 1992 원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졸업(도예전공)
- 개인전 5회
- 공모전 8회
- 단체전 다수
- 현) 한국공예가회, 천잠공예가회,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전국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
  평생교육원 강사 / 도꼼 도예 연구소

전북도립미술관 『모악에펴다』를 찾아서

박 지 예(회원)



오랜만에 찾은 도립미술관은 4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무료 관람이었다. 미술관에는 헤드셋도 대여해 주고 작품설명도 해주어 학원아이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었다. 2004년 개관이후 10여 차례의 전북 작가전을 개최한바 있는 도립은 2008년 [모악에 펴다] 8인의 전북에서 40-60여년 화업을 이어오신 대표작가의 작품 240점과 회고전 성격의 전시라고 한다. 8인의 작업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였다.

5개의 전시실중 1전시실은 8작가의 소품을 전시하였고, 2전시실부터 5전시실까지는 개개인의 작품을 시대와 흐름으로 구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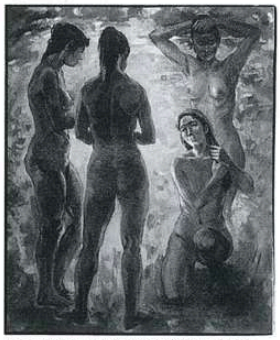
2전시실은 1번째 작가는 홍순무 선생님[1935년] 전북 고창생으로 서울대졸업하고 원광대학교 서양화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주교대 명예교수로 인물위주의 작품, 교육적 메시지, 연인, 농악 등 인물과 배경에도 주제의 느낌을 환상적인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2번째 작가는 전병하 선생님[1925년] 충남 강경 출생으로 원광대학교 국문과졸업하고 미술교사로25년 재직하셨다. 소재로는 국토에 애정을 담아 그린 작품으로 바닷가, 농촌풍경을 자유로운 붓터치로 하늘과 땅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

3전시실은 송계일 선생님[1940년] 전북 김제출생으로 홍익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전북대교수를 역임하셨다. 개인적으로도 교수님을 알고 있어서인지 20대 · 30대 작품의 변화과정을 보니 한순간에 산의형상이 나온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작품 '생활' 은 60년대 당시 아파트를 소재로 혁신적 구도로 빼곡기 세운구도로 그당시 호평과화단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구상에서 비구상까지 점차적으로 작업과정을 볼 수 있었다.

4전시실은 박민평 선생님[1940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서라벌예대졸, 전주대학교 회화과 대학원을 졸업하시어 전주대 겸임교수로 재직하셨다. 작품속 산의 풍경은 실제의 형상보다는 어릴적 부안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절재하여 표현한 화면구성이 돋보이는 멋진 풍경이였다.

홍순무


오월의 여인들 162.2×130.3 유채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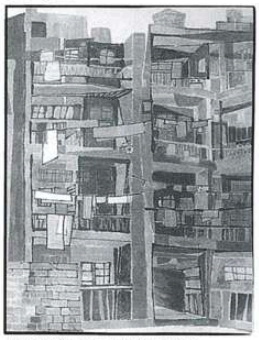

한국의 소리 162.2×130.3 유채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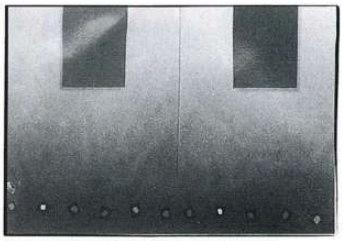
전병하


부산 야항 60.6×72.7 수채 2000


동해안 장호항 53×72.7 수채 2000

송계일


생활 259×194 수묵담채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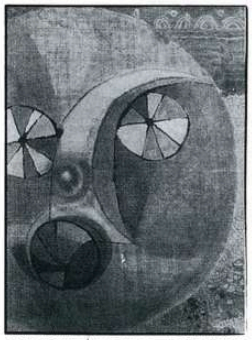

공간 속에 음과 양 130×324 수묵채색 1999

박민평


산 이야기 65.1×90.9 혼합재료 1988


계절 65.1×90.9 혼합재료 1995

이용휘


바다의 환상 162.1×130.3 수묵담채 1963


만추II 117×148 수묵담채 2007

한봉림


영원한 운동 40×40×40 점토 2007


영원한 운동 30×70×40 점토 2007

이창규


수도자 91×117 유채 1988


텅빈 충만 90×90 유채 1997

박종대


용솟음 · I 57×38×37 청동


웅비 · I 41×30.5×17 신트라 분홍 대리석

또 이용휘 선생님[1937년] 충남 부여출생으로 홍익대,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산대 박물관 관장, 군산대 명예교수로 재직하신다.

그리고 60년대초 새로운 구도의 접근을 시도하였던 "바다의 환상", "무희", "만추" 등 화면을 압도하는 수직구도, 작품속 물에 비친 그림자는 반절 접은 것 같은 그림자 표현으로 사진을 찍으면 보일듯 하다. 자신의 취미인 낚시가 빠지지 않는 등 너무나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5전시실은 한봉림 선생님[1947년] 홍익대 산업미술과 졸업, 현 도예과교수로 재직중이시다. 도예작품하면 컵, 소품, 그릇을 연상케 하는데, 흙을 종이처럼 구긴 듯 운동감과 우연의 효과, 회화처럼 흘러내린 물감 등 새롭고 모든 작품이 '영원한 운동감'으로 제목이 같다.

이창규 선생님은 강원도 회양출생으로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신다. 작품에 심상을 표현한다는 것이 고뇌속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할지 고민한다면 이 작품속에서 고민이 해결하고 싶다. 삶의 반성, 기억, 자연주의를 본인만의 언어로 재미있게 풀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쉽고 책처럼 읽을 거리가 있는 작품이였다. 작품 '부부'의 모습에서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할말이 없어 입을 그리지 못했다는 작가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호소력있게 다가가 보인다.

마지막 작가로 박종대 선생님은 전북 완주출생으로 서울대졸, 군산대 교수를 역임하셨다. 태극이라는 한가지 모양이 한울, 한몸, 포옹, 남여, 해와별, 역동, 천지인 등으로 다양하게 변모해가는 조소작업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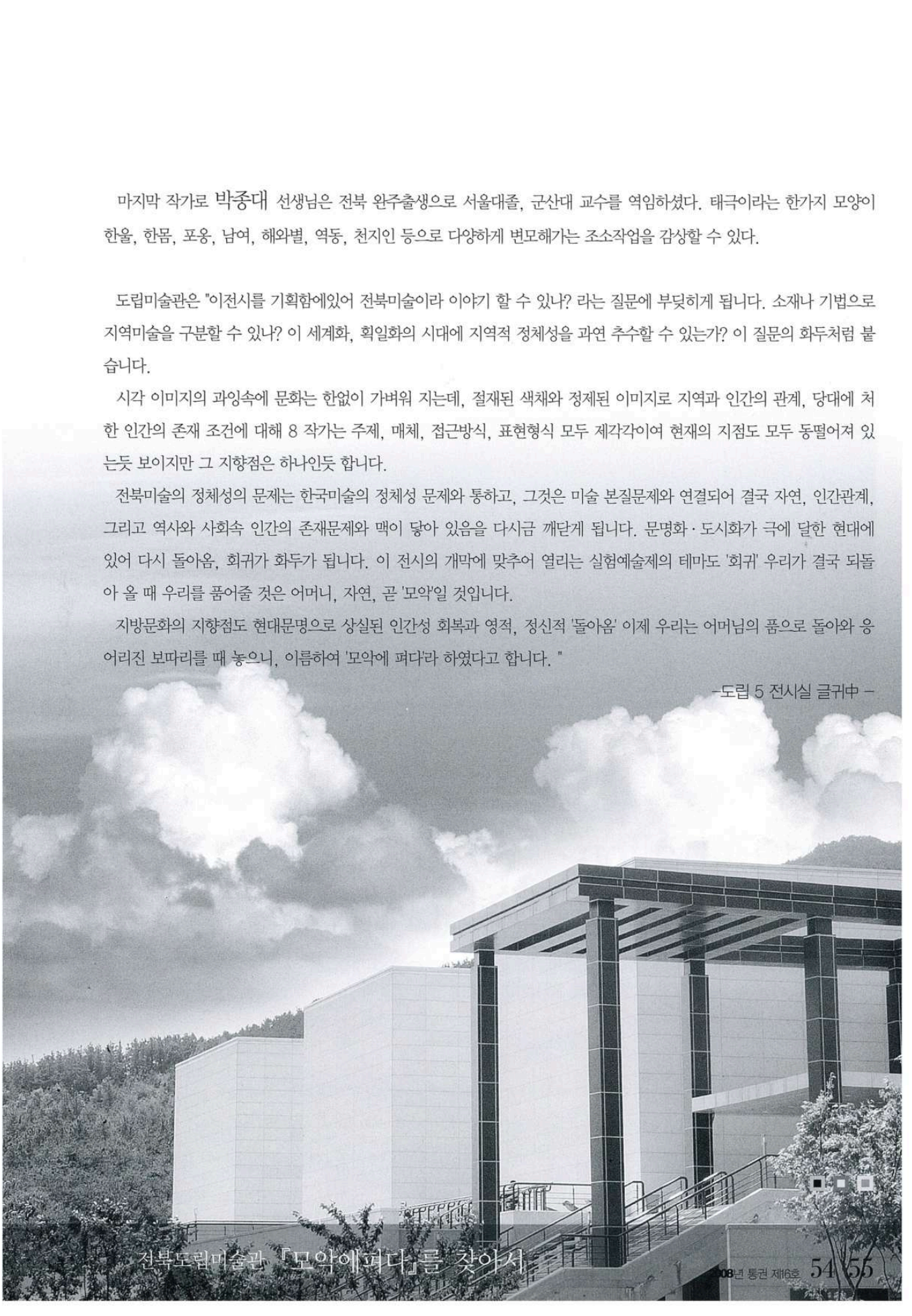
도립미술관은 "이전시를 기획함에있어 전북미술이라 이야기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재나 기법으로 지역미술을 구분할 수 있나? 이 세계화, 획일화의 시대에 지역적 정체성을 과연 추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화두처럼 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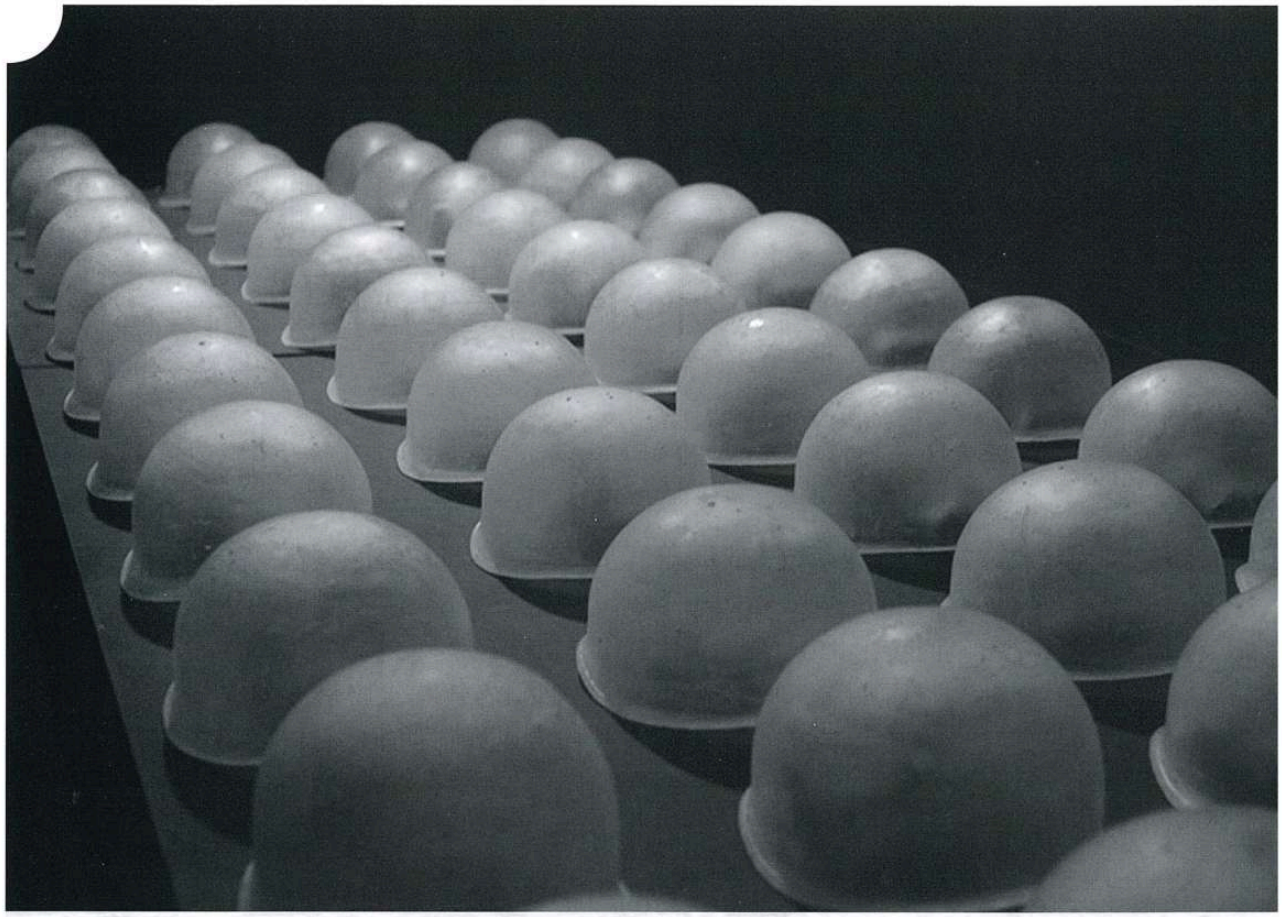
시각 이미지의 과잉속에 문화는 한없이 가벼워 지는데, 절재된 색채와 정제된 이미지로 지역과 인간의 관계, 당대에 처한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해 8 작가는 주제, 매체, 접근방식, 표현형식 모두 제각각이여 현재의 지점도 모두 동떨어져 있는듯 보이지만 그 지향점은 하나인듯 합니다.

전북미술의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미술의 정체성 문제와 통하고, 그것은 미술 본질문제와 연결되어 결국 자연, 인간관계, 그리고 역사와 사회속 인간의 존재문제와 맥이 닿아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문명화 · 도시화가 극에 달한 현대에 있어 다시 돌아옴, 회귀가 화두가 됩니다. 이 전시의 개막에 맞추어 열리는 실험예술제의 테마도 '회귀' 우리가 결국 되돌아 올 때 우리를 품어줄 것은 어머니, 자연, 곧 '모악'일 것입니다.

지방문화의 지향점도 현대문명으로 상실된 인간성 회복과 영적, 정신적 '돌아옴' 이제 우리는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와 응어리진 보따리를 때 놓으니, 이름하여 '모악에 펴다'라 하였다고 합니다. "

-도립 5 전시실 글귀中 -





3rd Battalion
11th company 1st platoon

2007, Cast glass (Philip soda glass), Sound work, mixed media
60 military helmets (24cm x 27cm x21cm)

In this work I am exploring the notion of identity in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use of glass, found object, space and sound I am attempting to provoke awareness and a sense of questioning within the viewer. I have observed that as individuals

we are often heavi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media and popular culture that surround's us.

Dominant forces are not a new phenomenon and each element utilizes us on mass for its own gain. Due to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our civilized society is one where everything is accelerated, where nostalgia and our notion of the 'past' has new meaning. We have become susceptible to a state of continuous change. As postmodernist 'geographers' it is often difficult to visualize the extent to which we are being affected and manipulated, in ways both blatant and subliminal.

In a developed and democratic society everything from what we should eat and wear to where we should travel is under scrutiny. I feel that this often creates a sense of misplaced responsibility in the individual. In non-democratic and third world societies this is heightened and the use of violence as a means of exploitation is often more obvious.

Throughout history, war can be shown as the result of influencing the ideology of whole nations. Having had first hand experience in a military situation, I hope that this work will instigate awareness about the ways in which we have been controlled as individuals. In terms of referencing the Iraqi war, I am appealing to the individuals' foremost experience of a well-documented and controversial conflict.

I have made 60 glass helmets. Each helmet represents a distinct personality. As in every war, this work is full of contradiction. I use this as a method to convey my message to the audience. I hope to engage the viewer with the idea of loss through fabrication of truth.

The helmet is one of the most vital components of the soldiers' bodily protection during battle. Relating to the head, therefore alluding to the mind and individual personality, this representation of crucial preservation of life is rendered obsolete through its' fragile glass form. Utilizing the

translucency of the material, I have placed partially visible paper parcels of civilian clothing underneath each helmet. I do this in an attempt to remind the viewer of the distinctive, individual lives involved and to invite the audience to think about their own identity.

Quoting the famously patriotic and inspirational 1960's speech by John F. Kennedy, the male voice attempts to provoke similar collective pride and idealism in his listeners. In order to rouse public support, such formulaic tactics are still employed by world leaders today. The integrity of the male protagonist is however questionable, as the voice stammers and struggles to relate a true sense of strength and leadership. The voice betrays a sense of frustration, discomfort and human vulnerability.

The thin line between life and death is strongly implicated within the confines of the installation. The helmets are placed at floor level forming an exact line like a military graveyard. In this way I present a personal petition to my audience, to continue to query what is being asked of us as individuals.

이 작품에서 저는 현대사회의 자아정체성을(identity)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리, 오브제트루베(자연그대로의작품), 공간과 소리를 통해, 저는 관객들내에 있는 탐구심과 자의식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개개인으로서 우리들은 종종 정부, 대중매체, 대중문화에 둘러싸여 그들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배세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각각의 요소들은 우리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어냅니다. 세계화와 기술의 발달 때문에 우리의 문명은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고, 향수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지리학자'로서 우리가 명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시각화하기는 힘듭니다.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입는 것부터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하는지까지의 이 모든 것은 감시 하에 있다. 내가 느끼기에 이 사실은 종종 개개인에게 잘못된 책임감을 만들어낸다. 비민주적사회와 제3세계에서 이점은 더욱더 강화되고 착취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더욱더 분명해진다.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은 모든 나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의 결과로 보여 진다. 군사적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작가본인으로서, 본인은 이 작품이 개개인으로서 우리가 통제되고 있는 방식을 깨닫도록 하기를 바란다. 이라크전쟁을 참고하여, 제일의 경험에 호소하고자 한다.

본인은 60개의 유리 헬멧을 만들었다. 각각의 헬멧은 서로 다른 인격을 나타낸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이 작품은 모순으로 가득 찼고, 나는 이것을 관중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관객들이 거짓을 통한 상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헬멧은 전투를 하는데 있어서 군인의 신체보호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마음과 개개인의 인격을 암시하는 머리를 보호하는, 생존의 중요한 보존도구가 깨지기 쉬운 유리 형태로 표현이 됨으로써 인생이 보잘 것 없이 여겨짐을 표현했다. 재료의 투명함(translucency)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옷감을 각각의 헬멧 아래에 넣었다. 이것은 관객이 서로 다른 개개인의 인생을 떠올리고 그들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생각해보도록하려는 시도이다.

애국주의적이며 심금을 울리는 1960년대의 John F. Kenney의 연설을 인용한 남성의 목소리는 전체주의적인 자부심과 관념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러한 의례적인 전술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목소리가 말을 더듬고 강력함과 지도력을 가지려 애쓰고자하면서부터, 남성 지도자의 목소리는 수상쩍어진다. 이 목소리는 좌절감과 불편함, 인간의 취약함을 내비친다.

삶과 죽음 사이의 얇은 선은 제한된 설치를 통해 강하게 암시된다. 마치 군인묘지처럼, 헬멧은 바닥에 뚜렷하게 그려진 선 위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개개인으로서의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물어 볼 거리를 나의 관객에게 제공한다.





딸을 둔 덕에 비행기를 타다

이 진 숙 (회원)

새벽 3시 30분 호텔방이 밝아 온다. 커텐을 열고 보니 바다위에 해가 막 뜨기 시작한 것이다.

호텔방에서 일출을 본 것이다. 이번 여행이 즐거울 것이라는 암시라도 해주는 듯하다. 기분이 상쾌하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듯하다. 일본 여행의 첫날이 이렇게 밝았다.

전날 밤 잠을 설쳤다. 새벽1시 30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살피고 또 살피고 공항버스를 탔다. 새벽이라서 별 어려움 없이 공항에 도착하여 일행을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은 언제나 사람을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는 마력이 있다. 처음 하는 여행도 아닌데 매번 가슴이 설레는 것은 내가 철이 덜난 탓일까?

산치토세공항에 도착하여 지문날인을 했다. 기분이 정말 묘했다. 아니 기분이 무척 상했다. 그러나 그 나라관례라는데.....

'러브레터'란 일본 영화를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다. 바로 그곳 오타루에 도착을 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도 아닌데 몹시 흥분이 된다. 시로이코이비토란 과자를 만드는 공장에 들렀다. 흰우유와 하얀 초코렛을 섞어 만든 과자인데 맛이 기가 막혔다. 오르골전시장에 들러 한껏 눈요기를 하고 기타이치가라스공방거리를 걸으면서 우리의 인사동을 생각했다.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어 마음이 아픈 곳 인사동, 그러나 이곳 공방거리는 이곳의 특산품인 유리제품이 넘치게 전시가 되고 관광객뿐 아니라 그곳 사람들도 마침 아버지의 날을 맞아 선물준비에 한창이었다. 나도 이곳 공방거리에서 유리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수저받침을 샀다. 언제부터인가 여행을 하면서 그곳 특산품을 하나씩 사 모으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간직한 건물들을 자세한 안내문과 아울러 공방과 전시장으로 이용하며 지금의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타루운하는 지금은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슬픈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다. 한가하게 운하를 따라 걷는 것도 여행자의 멋진 추억이 되었다.

멋있는 일출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침식사를 위해 호텔식당에 들렀다. 마침 장애우 서너 명이 호텔에 들어오는 중이었다. 많은 호텔 직원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어나가 휠체어를 밀어서 식당으로 안내를 하고 또 음식을 이것저것 가져다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역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과 아울러 우리의 형편이 생각나서 기분이 씁쓸했다.

이곳 오타루는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란다. 그래서 음식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점심으로 호타테(가리비)를 주재료로한 정식요리를 먹었다. 맛 기행답게 가는 곳곳마다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배와 눈이 무척 즐겁고 풍요로웠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도 잠시 니시야마분화구 전망대를 구경할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2000년 3월31일에 우수산 분화로 인해 생겨난 화구군인데 그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

첫날의 숙소는 현대식호텔이었는데 둘째 날은 일본 전통을 맛볼 수 있는 다다미방이 있는 호텔이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투숙객들이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다닐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맛 볼 수 있었다. 노보리멧츠 시대촌이라는 우리나라의 민속촌에 해당되는 곳을 구경하였다. 에도시대를 재현한 거리와 그 시대의 상징인 닌자와 게이샤를 주재로 한 공연을 관람했다.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닌자들의 삶을 생각하니 가련한 마음마저 들었다.

동경, 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삿뽀로 이렇게 일본에는 5대도시가 있다는데 그중 삿뽀로가 있는 북해도는 일본 속의 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구문물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특히 삿뽀로는 도시 전체가 계획도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여행의 마지막을 삿뽀로에서 보내게 되었다. 일본 본토사람들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란다.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아주 정갈하게 정돈이 되어있고 오오도리공원이라는 삿뽀로 중심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공원이 있어서 많이 부러웠다. 곳곳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있고 분수가 있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특히 삿뽀로가 자랑하는 TV탑은 에펠탑을 본뜬듯했다. 나는 여행 중에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아침마다 그곳 거리를 산책하는 일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오도리 공원을 산책했다. 세계장수 국가답게 많은 노인들이 나와서 체조를 하는데 각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지시에 따라 음악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물론 노인이기에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했던 국민체조가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다.

북해도에서 많이 나온다는 해물요리 특히 게 요리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그 유명하다는 삿뽀로 라면을 먹어보았다. 그리고 삿뽀로 맥주공장의 청결한 분위기와 맥주 맛은 일품이었다. 미식가인 아빠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네미가 마련한 이번 북해도 맛 기행, 딸이 있었기에 누린 호사였다. 힐튼오타루에서 맞이한 해맞이, 오타루거리에서 맛 본 아이스크림, 명수정에서 했던 온천욕, 등등 지금도 어제 일처럼 눈앞에 아른거린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아쉬운 것, 그러나 아직은 젊기에 내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여행을 기대한다.

하얼빈 여행기

고 형 숙 (회원)

올해 초 2월 20일 친구 3명과 함께 중국에 가게 됐다. 사실 좀 오래되어서 여행기를 쓸려고 하니 기억이 아득하긴 하다. 우리의 처음 목적지는 북경이었고, 북경 외에 한 지역을 여행하기로 하고 간단한 여행계획을 세웠다. 이 여행은 어쩌면 좀 무모했는데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계획이나 예정이 없이 갑자기 시작되어서였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처럼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냥 여행하자는 말이 나와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여하튼 즐거운 마음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날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4시간이나 연착됐다. 2008년 2월 20일은 육군 헬기가 양평군 용문산에서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 장병 7명이 전원 사망한 날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비행기가 연착된다고 계속 투덜대고 있었다. 시간을 죽이고 죽여 하늘이 좀 편안해지던 시간에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다.

북경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향했다. 북경에서 유학하는 친구 집에서 철판 깔고 숙박하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북경에서의 첫날밤은 왕푸징 거리를 구경하고, 천안문에서 국기 하향식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음 날은 798지역에 가서 갤러리들을 구경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 북경 자유여행을 했다. 나는 북경이 4번째여서 좀 지루했고 유학생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 명은 각자 북경여행을 했는데, 고궁에 다녀온 친구도 있고, 지하철만 타고 구경 다닌 친구도 있고, 각자 개성에 따라 즐거운 여행을 했다고 한다. 나는 친구와 집 주위를 구경하고 장도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때까지 우리는 다음 여행지를 결정하지 못했었는데, 중국 여행 책자를 보며 겨울에 빙등제와 빙설제로 유명한 하얼빈을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 4명은 모두 중국말을 할 줄 몰랐는데 무슨 용기였는지 몰라도 기차에 올랐다. 북경에서 하얼빈까지는 11시간정도 걸렸던 것 같다. 침대칸을 잡아서 새벽에 기차를 타서 저녁쯤 하얼빈에 도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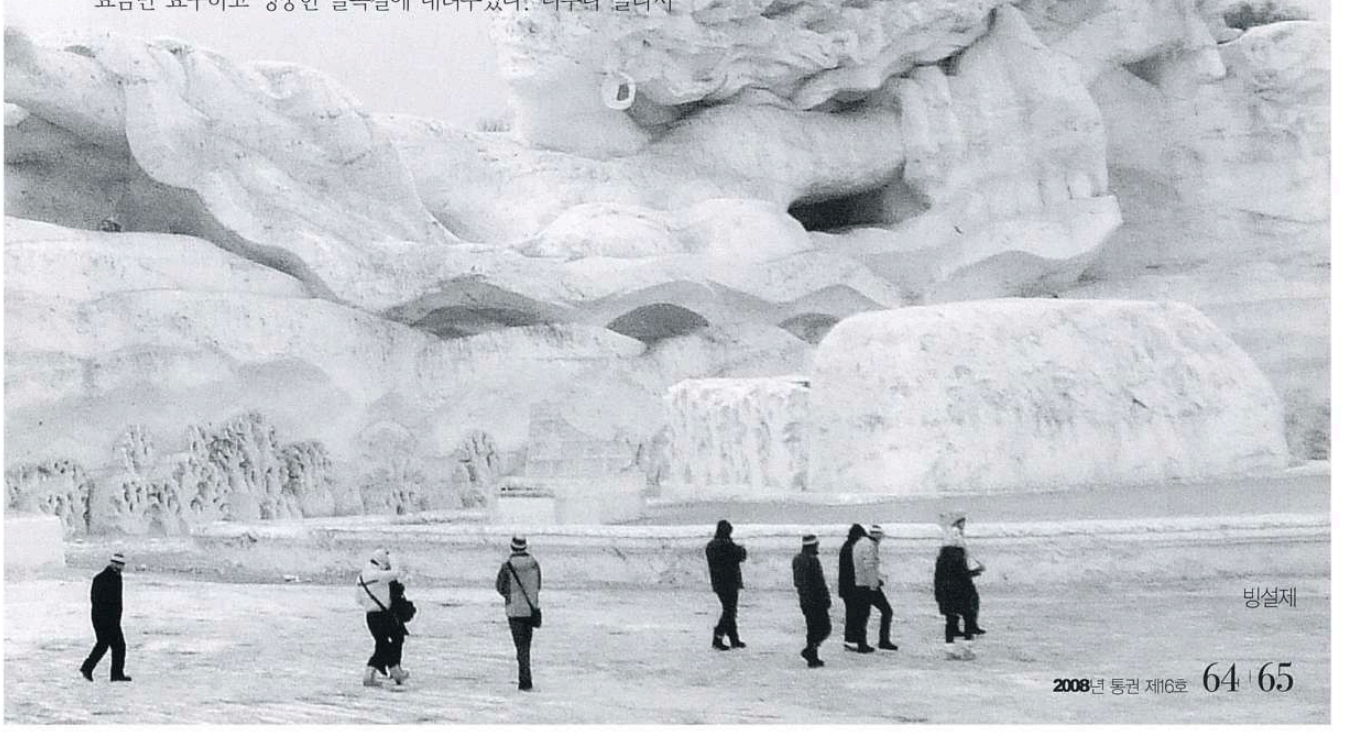
중국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기차여행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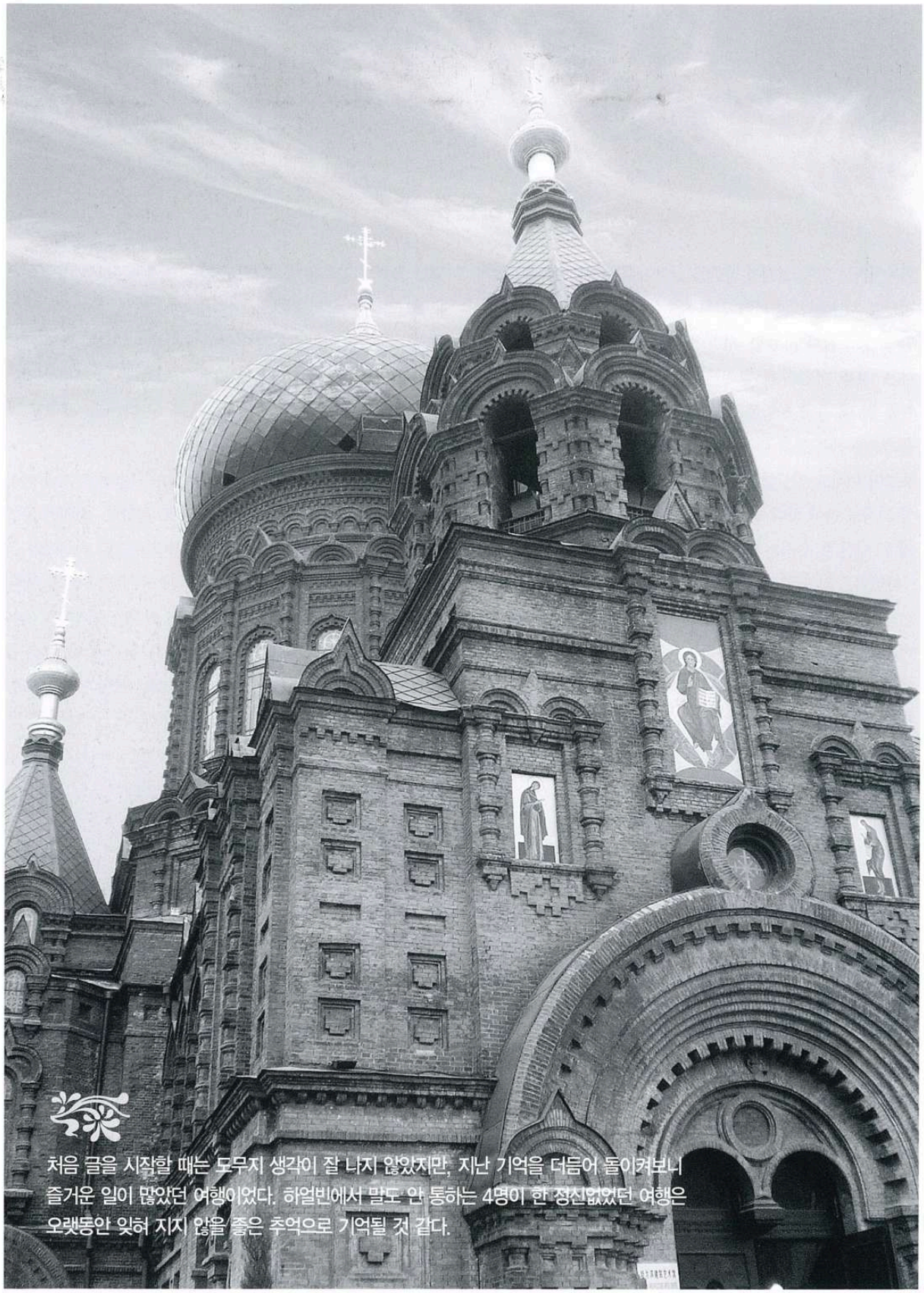
대륙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만큼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쉴 사이 없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루한 시간이 계속된다. 정말 중국이 넓다는 것을 실감하게 할 만큼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보통 기차를 탈 때 중국 사람들은 양손 가득 과일, 과자, 라면 등 먹을거리를 잔뜩 들고 탄다. 처음 중국에서 기차를 탔을 때는 그 풍경이 너무도 이상했는데, 짧으면 5-6시간 길면 15시간 이상 기차를 타야 하니 당연한 일이다. 자다 일어나다 먹다 그렇게 11시간 후 우리는 하얼빈에 도착했다.

하얼빈은 확실히 북경보다 날씨가 많이 추웠다. 내복까지 단단히 챙겨 입었는데도 정말 뼈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마음까지 어는 것 같았다. 북경으로 돌아갈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했는데 기차표가 없었다. 그때부터 중국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당연히 당황하게 되고 기차역에서 4차선도로 건너에 있는 터미널을 몰라보고 택시를 타서 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 택시기사는 바가지 요금만 요구하고 엉뚱한 골목길에 내려주었다. 너무나 놀라서 말도 못하고 골목을 빠져나와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조선족 모텔이라는 이름의 허름한 여관을 발견했다. 혹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 들어가 봤더니 다행히 조선족 청년이 여관에 딸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조선족 청년을 붙잡고 상황 설명을 하고 기차표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곳에 묵기로 했다.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하얼빈 밤거리도 구경하고 저녁 식사도 하기 위해 택시에 올라 '중앙대가'로 향했다. 하얼빈 중앙대가는 1900년대 러시아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러시아와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아 이국적인 느낌이 풍기는 곳이다. 밤에는 건물에 아름다운 조명등을 켜놓아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춥고 배고팠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한참 걸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음식도 시켜먹었다. 해산물을 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이 맛있었다. 거리를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었고 낯선 곳이라 숙소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다.



빙설제



처음 글을 시작할 때는 도무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지만, 지난 기억을 더듬어 돌이켜보니 즐거운 일이 많았던 여행이었다. 하얼빈에서 말도 안 통하는 4명이 한 정신없었던 여행은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을/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

성소피아성당

다음날 그 조선족 청년의 도움으로 기차표를 구하게 됐다. 물심양면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조선족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택시에 올랐다. 북경에 가는 기차는 오후 4시 기차였고 그 전까지는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남은 시간을 최대한 아껴 하얼빈을 구경하기로 했다. 하얼빈은 겨울에 빙설제를 하는데 눈으로 거대한 조각을 하는 축제다. 우리는 우선 빙설제를 구경하기로 했다. 빙설제는 하얼빈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태양도 풍경구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태양도풍경구는 하얼빈시의 송화강 북쪽 끝에 위치하는 섬으로 스탈린공원과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일종의 거대한 공원인데 풍경이 아름답다고 하나 겨울이여서 그런지 허허벌판에 눈덩어리만 있어서 추위가 더 느껴졌다. 눈조각들은 사람의 키를 한참 넘어서는 것은 기본이고, 낮은 앞산만한 조각상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많이 실망이 되었다. 그곳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성소피아 성당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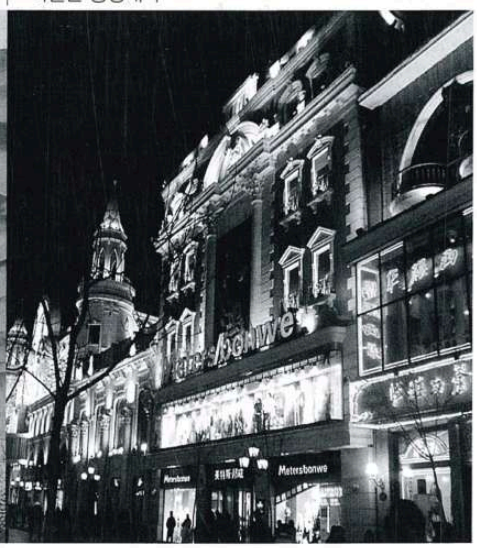
소피아 성당은 하얼빈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성당으로 주변 극동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한다. 외부의 모습이 러시아 건물을 연상시키고 내부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마침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2시였는데 성가대가 합창을 하는 시간이었다. 3곡정도를 불렀던 것 같은데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성당 내부는 전시장으로 이용되는 듯 했다. 성당에서 나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기차역으로 향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하얼빈 여행의 많은 에피소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놀란 일도 많았고 그만큼 즐거운 일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돌아가는 기차는 고속열차여서 8시간 만에 북경에 도착했다. 북경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와 하얼빈 여행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한참 웃고 나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함께 북경외곽의 시골마을에 가서 허물어가는 만리장성도 구경하고 시골마을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의 8박 9일의 여행은 끝을 맺었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는 도무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지만, 지난 기억을 더듬어 돌이켜보니 즐거운 일이 많았던 여행이었다. 하얼빈에서 말도 안 통하는 4명이 한 정신없었던 여행은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

태양구 조각상 | 하얼빈 중앙대가





초겨울, 강가에서

선 산 곡

해가 저문다. 솔밭 따라 산그늘이 낮게 내려와 있는 강가 주변에 계절의 얼굴도 어느새 바뀌기 시작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마다 스산한 초겨울의 한기를 지니고 있다.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는 산모퉁이 길을 차가 흔들리며 달린다. 차창 밖 산마루가 덩달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춤을 추는 것 같다.

강을 건너 다리 끝 길가에 차를 세운다. 강줄기를 따라 부는 바람이 제법 차갑다. 강 둔덕에는 억새며 갈대들이 바람 따라 허리춤을 추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산마루를 바라본다. 푸른 소나무와 바위로 이루어진 산, 저 산과 이 강 주변에 곧 눈이 내릴 것이다. 눈 덮인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상해보며 옷깃을 세운다. 날이 쌀쌀하다.

가방 끈을 한쪽 어깨에 둘러메고 조심스레 다리 아래로 내려간다. 수심은 깊지 않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바윗돌들이 강폭 전체에 깔려있다. 행여 넘어져 정강이 부딪칠라, 바라만 보아도 오금이 저린다. 크고 작은 바위틈으로는 모래톱 하나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물길을 따라가면 이골저골 물들이 합수 져 섬진강(蟾津江)이란 이름으로 유장히 흐르고 흐를 것이다.

물살이 제법 거세다. 물빛도 서늘해 보인다. 가방 풀어 버너를 꺼내 불을 붙이고 코펠에 물을 올려놓는다. 바람막이로 버너의 불꽃을 달래면서 물 끓기를 기다린다. 커피 한 잔 만들어 들고 서서 바라본 하늘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청승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커피 잔을 들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떠나. 아주 갈거야."

낮에 받은 전화였다. 아주 이민을 떠난다는 그의 전화에 처음엔 담담했다. 한 때 화려했던 우리들의 만남은 이제 기약 없는 이별로 이어져야 한다. 수화기를 놓은 뒤 잘 가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뒤늦게 찾아온 현실감이 마른 오열을 삼키는 기분이 되었다. 내가 남아있는데 내 자리가 빈 느낌이었다.

이제 목도리를 챙겨야 할 때인 것 같다. 시린 내 마음을 감싸 안 듯, 내 의식을 따듯하게 파묻을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어서 눈이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산천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나 자신은 그대로 침잠할 테니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다 해도 그 무엇도 탓하지 않겠다. 그래, 이로서 내게 다가오는 겨울을 맞을 준비는 끝났다.

흐르는 물로 커피 잔을 씻는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아려온다. 잊고 있었던 가슴 속 아픔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강을 싸안고 내려다보던 산이 어둠에 묻히기 시작한다. 산은 어둠과 함께 물 흐르는 소리도 정적으로 끌어안는 모양이다. 어둠이 내리는 초겨울 강가에서 가슴을 깎다 천천히 나는 일어선다.

선산곡(宣山谷)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전북수필문학회장 역임

– 수필집LA쑥대머리, 끽주만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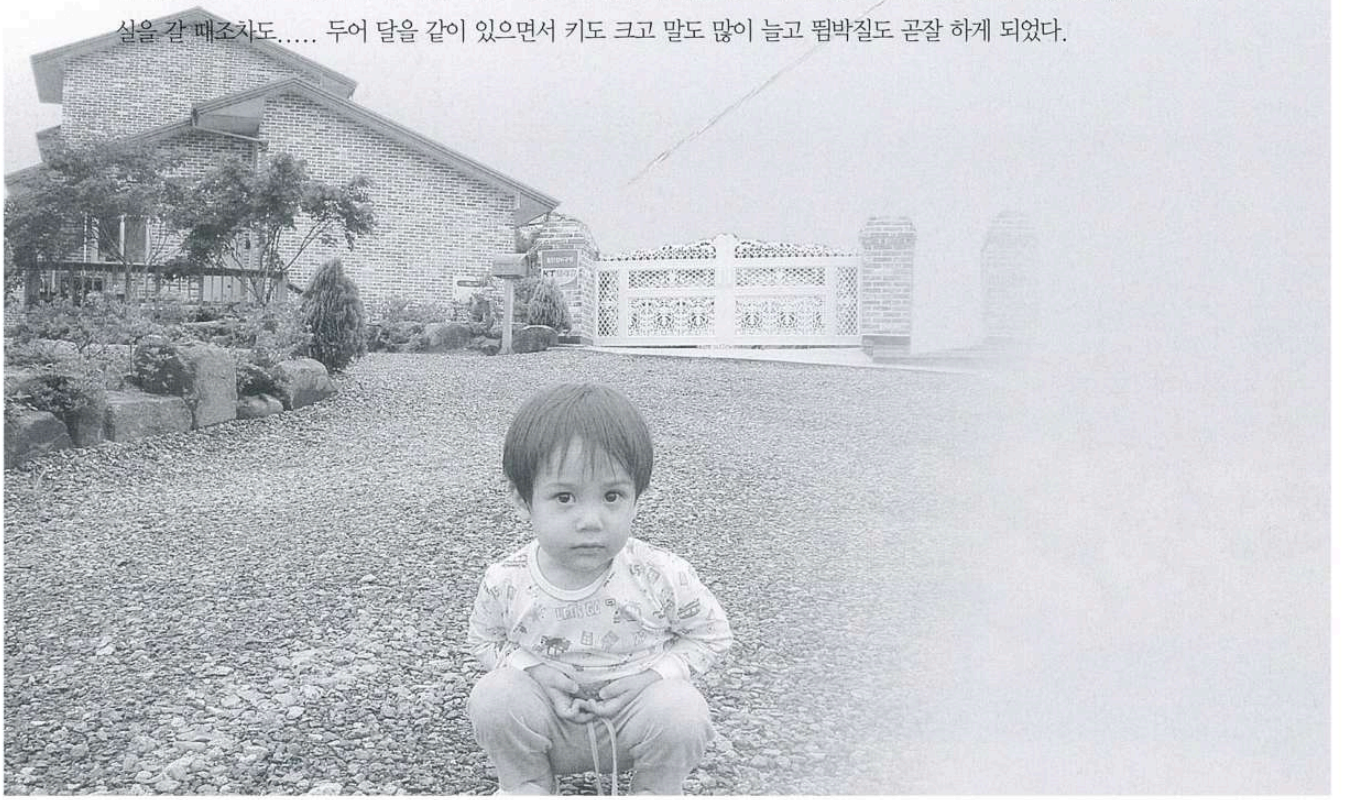
– 현 전북문인협회 사무국장

• 사람살이

이 진 숙 (회원)

둘만 남았다. 덩그러니 큰 집에.....
'할머니~ ~' 하며 손자 녀석이 잠에서 막 일어나 부엌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올 것 같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녀석이 동생을 보았다. 그래서 엄마를 따라 외가에 온 것이다. 아직 채 기저기도 떼지 못한 녀석이 동생을 보았으니 얼마나 안쓰러운지..... 녀석의 이름은 가온이, 순우리말이다. 가온인 신사이다. 인사도 잘하고 혼자서도 잘 놀고, 마당에 나가면 풀도 곧잘 뽑는다. 그러한 녀석이 동생 루미에게만은 폭력이 난무하다. 한번 말한 것은 절대 잊지 않고 실천하는 녀석인데, 왜 아니겠는가 22개월을 저만 예뻐하고, 저만 바라보고, 어디든지 저하고만 다니고, 누구에게든 관심의 집중이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와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게 되었으니, 다른 것은 모두 인정해도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듯이 어른들이 잠깐이라도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면 곧바로 무차별 물고 꼬집기 일쑤이다. 나는 그런 가온이가 몹시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녀석과 늘 같이 다녔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두어 달을 같이 있으면서 키도 크고 말도 많이 늘고 뜀박질도 곧잘 하게 되었다.





'하버지 어디 있어?' 잘 돌아가지도 않는 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는다. '멍멍이는?' 하며 멍멍이에게 가자며 조른다. 마당에서는 혼자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깔깔거리며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둘만 살던 집에 가온이와 루미는 살아있는 인형이고 꽃이고 웃음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 찾아온 행복은 딸아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대학을 다니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바쁘게 살면서 친정에 와서 한가하게 부모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이렇게 산휴로 오랜 시간 같이 하니 얼마나 좋은지……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고, 오랜 친구를 만나서 흉허물 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듯해서 너무 좋았다.

더위가 어느 덧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을 때, 회사에 복귀할 시간도 점차 다가오고, 오래 집을 비워두었기에 이제는 집에 올라가야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을 싸며 행복해 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다.

차 두 대에 짐을 가득 싣고 올라갔다. 하루저녁을 같이 보내고 집에 내려오니 곳곳에 가온이와 루미, 그리고 딸아이의 흔적이 내 눈시울을 적신다.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들어오자마자 둘이서 손발 걷어 부치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리고 빨래를 해서 마당에 널고 보니 또 다시 녀석들이 생각난다. 아이들 옷과 기저기를 빨아 마당에 건조대를 내놓고 쨍한 햇빛에 말려서 정리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깜짝놀라 받아보니 '할머니~~' 하며 녀석이 전화를 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빠이빠이' 하며 끈는다.

'여보 상추밭에 물도 주고 풀도 뽑아야겠어' 남편의 목소리에 밭으로 달려 나간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잔디에 물도 주고 배추밭도 돌보며 가끔씩 그와 같이 야외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손자들 생각에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읽을 만한 책



미켈란젤로 미술의 비밀(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의 해부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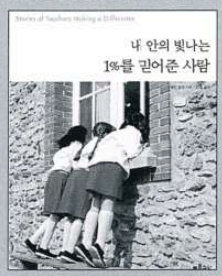
〈 질송 바헤또&마르셀로 G. 올리베이라 / 유영석 임두빈 감수 역 / 문학수첩 〉

최후의 만찬에 다빈치 코드가 있다면 천지창조에는 미켈란젤로 코드가 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르네상스의 천재 미켈란젤로를 해부학자로 재발견하다!

『미켈란젤로 미술의 비밀』은 독자들을 미켈란젤로의 대작 속에 감추어진 비밀 속으로 깊이 있게 안내하는 흥미롭고도 자극적인 열정의 결과물이다. 〈천지창조〉에 숨은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해부학자 미켈란젤로를 만날 것이다. 또한, 시스티나 성당 천장과 벽면이 해부학의 열린 교과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안의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 제인 블루스틴 / 도솔 역 / 푸른숲 〉



인생에서 가장 무력하지만 또한편으로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선생님의 애정어린 말 한마디와 행동을 통해 발전하고 자라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저 따뜻한 눈길과 미소, 관심, 신뢰 등 누구나 한 번쯤 자신들의 스승에게서 느껴봤을 평범한 것들이다. 그래서 더욱 마음에 와닿고, 추억에 잠기게 하는 여운 깊은 글모음.고대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의 왕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멘토(Mentor)에게 부탁한다. 그후 멘토는 오디세이가 전장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왕자의 친구이자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로서 왕자를 잘 돌봐준다.
10 · 20대에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시기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을, 30 · 40대에게는 지난날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스승에 대한 긍정적이고 소중한 추억을, 50?60대에게는 삶의 모범이 되는 향기로운 자세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리하여 세파에 시달려 점점 더 무뎌지는 감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신이 쌓여 가는 세상 속에서도 감사와 겸손함을 되찾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불을 밝혀줄 것이다. [예스24 제공]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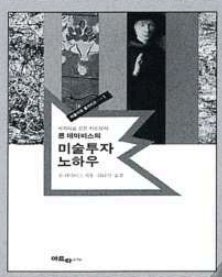
〈 조영남 / 한길사 〉

우리는 현대인이다. 그런데 왜 우리 현대인은 현대미술을 모르는가.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정이 달랐다. 그때의 그림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나 귀족의 초상화거나 진짜 과일처럼 그린 정물화이거나 나무 이파리까지 정확하게 그린 풍경화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림은 어려워졌다. 어느 것이 좋은 그림인가, 왜 뛰어난 작품인가를 판단하기 난해해진 것이다.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은 가수이자 1973년 이후 서울 · 부산 · 뉴욕 · LA 등 세계 각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화가 조영남이 말하는 현대미술의 이해이다. 그는 현대미술을 '우리의 두 눈을 즐겁게 하거나 언짢게 하는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그 흐름을 살펴 '그림 보는 법'을 소개한다. [예스24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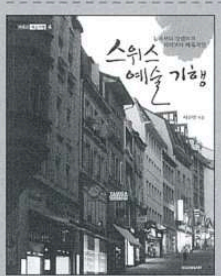
론 데이비스의 미술투자 노하우(세계미술 전문 아트딜러)

〈 론 데이비스 / 최리선 역 / 아르타 〉



『론데이비스의 미술투자 노하우』는 미술품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미술투자 지침서로 미술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전문 아트딜러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 영역별로 말 그대로 꼼꼼하게 가이드하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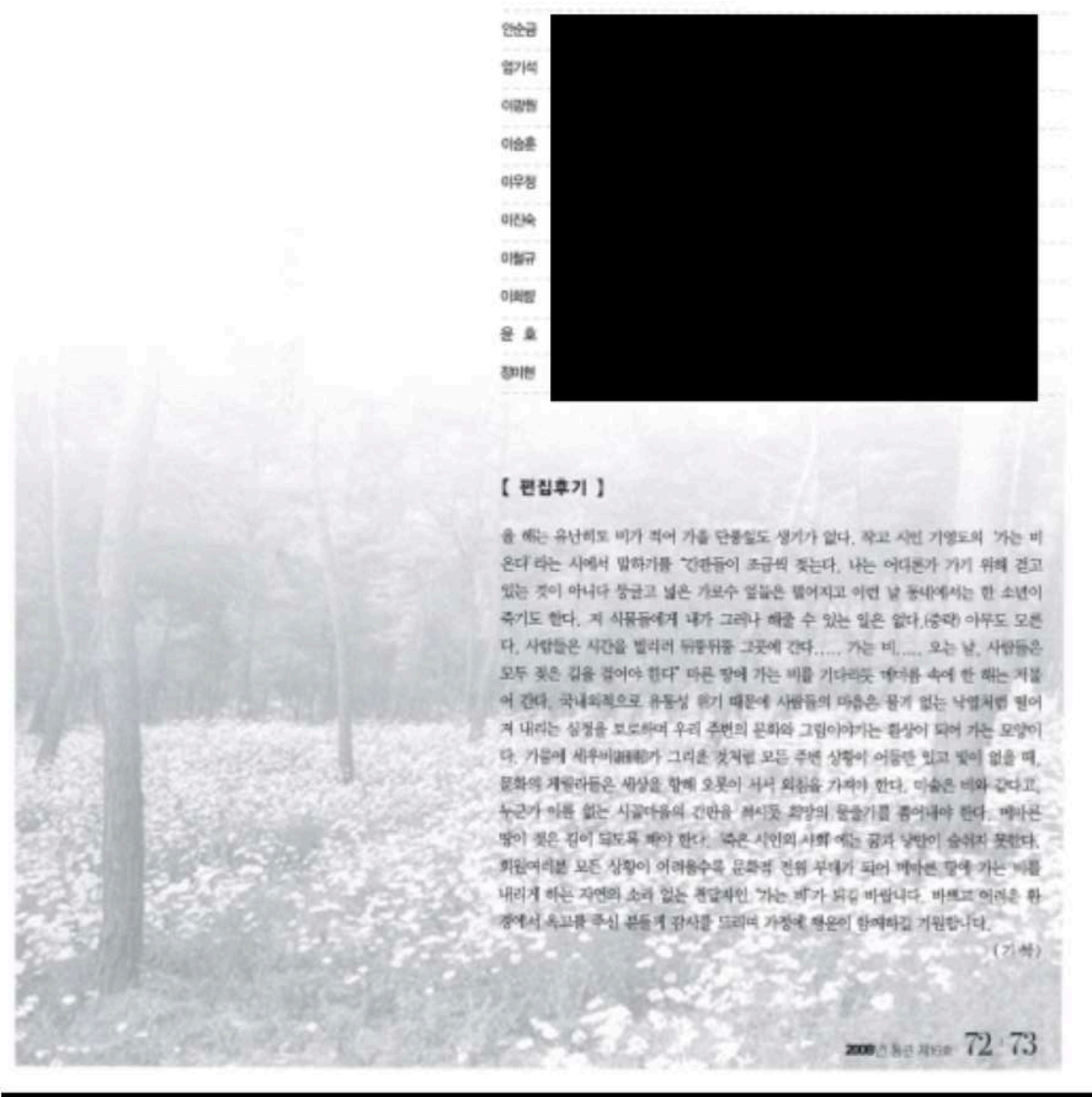
오랫동안 아트딜러로 활동해온 저자는 자신이 쌓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딜러로서 준비하고 활동하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독자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쳐주며 특히 중요한 항목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책은 딜러로서 미술품을 찾아내고 평가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미술품 거래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즉 딜러를 비롯해 컬렉터, 투자가, 화랑, 미술관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지를 살펴보면서 미술시장에 대해 조망하게 하고 있는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스위스 예술기행

〈 이수영 / 시공사 〉

스위스하면 아름다운 풍광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부자나라인 이곳은 관광 못지않게 천정부지의 예술 작품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특히 근대 · 현대 미술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품인 이곳의 미술관들을 예술적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흥륭하다. 그러니 스위스의 갤러리와 박물관, 미술관에 발을 디디면 끊임없이 샘솟는 예술의 향연에 마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
뉴욕과 파리를 중심으로 예술문화가 집중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스위스의 화랑과 아트딜러들의 자본력, 그리고 그들의 열정도 팝 아트와 비디오 아트 등의 분야에서 스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 책을 따라 스위스 예술여행을 함께 하는 당신은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과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다.



안순금
염기석
이광림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희정
윤 효
정미현

【 편집후기 】

을 해는 유난히도 비가 적어 가을 단풍철도 생기가 없다. 작고 시인 기영도의 '가는 비 온다'라는 시에서 말하기를 "간판들이 조금씩 젖는다. 나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등굽고 넓은 가로수 잎들은 떨어지고 이런 날 동네에서는 한 소년이 죽기도 한다. 저 식물들에게 내가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중략)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시간을 빌리러 뒤뚱뒤뚱 그곳에 간다..... 가는 비..... 오는 날, 사람들은 모두 젖은 길을 걸어야 한다" 마른 땅에 가는 비를 기다리듯 예술을 속에 한 해는 저물어 간다. 국내외적으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물기 없는 낙엽처럼 떨어져 내리는 심정을 보도하며 우리 주변의 문화와 그림이야기는 환상이 되어 가는 모양이다. 가을에 세우비(細雨)가 그리운 것처럼 모든 주변 상황이 어둡만 있고 빛이 없을 때, 문화의 계절라들은 세상을 함께 오롯이 서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 미술은 비와 같다고, 누군가 이름 없는 시골다음의 간판을 써시듯 희망의 물줄기를 흘려내야 한다. 메마른 땅이 젖은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죽은 시인의 사회 속는 끝과 낭만이 숨쉬지 못한다. 회원여러분 모든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화의 전위 부대가 되어 메마른 땅에 가는 비를 내리게 하는 자연의 소리 없는 전달자인 '가는 비'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고 어려운 환경에서 옥고를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 석)



발행.편집인 / 엄기석
편집위원 / 이광원, 박지예, 고형숙
전북회화 2008년 통권 16호
발행일 / 2008. 11. 20
대표연락처 / 010-3681-8673
기획,제작 /
프린팅헤븐 T. 287-9796, 011-255-1236



2008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습니다.